

# 13 05

## 한·인도 수교 40주년: 교역 부문 성과와 과제

이 응  
송영철  
이정미

# 한·인도 수교 40주년: 교역 부문 성과와 과제

이 응 · 송영철 · 이정미

## 국문요약

2013년은 한국과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맞추어 본 연구는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양국 경제협력에서 가장 활발한 부문인 교역에 대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양국 교역관계를 심층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양국 경제협력의 이정표를 세운 한·인도 CEPA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전체적인 교역 현황과 추이를 정리하고 한·인도 양국에 초점을 맞추어 품목별 교역에 대한 장기 추이를 조사하였으며, 무역과 관련한 경쟁 및 보완 지수를 통해 한·인도 양국의 품목별 경합도와 분업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시계열 분석인 VEC(벡터오차수정) 모형을 이용해 양국의 교역량을 예측하였다.

한·인도 교역은 1973년 수교 당시 약 1,400만 달러로 양국의 교역 부문 협력은 그다지 활성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1년 인도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서서히 증가하였고, 특히 인도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던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다시 경기가 부진하여 2012년 전년대비 약 8% 감소하였으나 양국의 교역량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계열 추정으로 양국의 교역량을 예측해 보면 2013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증가하여 2015년 약 270억 달러, 2020년 대략 56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예전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인데(2015년 340억 달러, 2020년

680억 달러), 이는 2011년과 2012년 인도와 한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성장률 감소를 반영했기 때문이다.<sup>1)2)</sup> 하지만 앞으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하여 관세 인하의 속도를 높이거나 양허관세율의 추가적인 인하 및 철폐를 추진한다면 이 보고서의 예측치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량을 달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인도가 고성장이던 2004~06년 사이 휴대전화기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서 소비재 비중이 2006년 20%까지 증가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13년 1~9월 사이에는 급감하여 소비재 비중이 5% 미만에 머물렀다. 이는 인도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와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 인구규모 1위 국가인 중국을 인도가 조만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인도 소비재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2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던 대중국 교역이 2010년 이후 둔화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인도 소비재 시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이므로 우리 기업은 인도시장에 맞는 제품을 차별화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인도 수입은 2010년 한·인도 CEPA의 영향을 받았다. 인도 수입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나프타는 한·인도 CEPA 이전 관세율이 1%였으나 2010년 CEP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인도 나프

---

1) 인도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8.6%와 9.3%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6.2%, 2012년 5.0%로 하강세를 보였다. 한국도 2012년 2.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9년을 제외하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CEIC Database, 2013. 10. 1).

2) 이용, 송영철, 조충제(2011, p. 15)의 전망은 1993~2010년간 평균성장률인 14.5%를 적용한 수치이므로 2011~12년 기간의 양국 경기침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타 수입은 2010년, 2011년 각각 34%, 51% 증가하였다. 한·인도 CEPA 이후 2011년 나프타의 수입액은 2009년 경제위기로 41% 감소한 나프타의 수입액 하락 폭을 회복한 것이며 2008년 38억 8,900만 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것이다(46억 2,600만 달러). 이는 인도가 한국과 체결한 FTA로 얻은 직접적인 수혜이며, 한국은 비용 측면에서, 인도는 대한국 적자해소에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를 통해 양국 모두 한·인도 CEPA의 수혜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인도의 교역 관련 분업관계를 나타내는 좋은 예이다. 한국은 인도에서 나프타와 같은 원료를 수입하고 가공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는데 이는 분업적 관계의 교역이다. 이러한 관계의 품목을 발굴하여 관세 철폐한다면 한국은 비용절감, 인도는 대 한국 적자 폭 축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한 현시비교우위와 시장비교우위 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에 세계시장이나 상호 수입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양국 기업 및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의 재개이다. 업그레이드를 통한 관세철폐품목 확대 및 기존의 양허세를 인하 가속화는 한국뿐 아니라 인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웅, 송영철, 조충제(2011, p. 13)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관세 인하 폭이 증가할수록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복지효과(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도 인도가 더 클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나프타의 사례를 보더라도 직접적인 관세인하 및 철폐의 수혜자는 인도이므로, 인도는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한 관세인하

및 철폐 가속화가 실현된다면 본 연구의 계량분석 예측치인 2015년 270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며 2020년 예측치인 560억 달러를 웃도는 600억 달러 이상의 양국 교역량을 달성할 여지 또한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한·인도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당연히 공동위원회 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도 계속 지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 인도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면 인도도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총선 이후의 인도 정국을 예의주시하면서 2014년에는 한·인도 업그레이드 협상을 성사시키고 이를 위한 아젠다 및 전략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인도 교역 부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및 분석은 우리 정부의 대인도 경제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인도 수교 40주년에 맞추어 진행된 본 연구가 한·인도 양국의 경제협력, 특히 교역부문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데 이바지 하길 바란다.

■ 국문요약 .....	3
■ 제1장 서론 .....	13
1. 연구 배경 .....	14
2. 선행 연구 .....	15
3. 연구 방법 및 구성 .....	17
■ 제2장 양국의 통상정책 및 한·인도 CEPA .....	19
1. 한·인도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	20
2. 한·인도 CEPA .....	27
■ 제3장 양국간 교역 발전 과정 및 특징 .....	35
1. 한·인도 교역 변천사 .....	36
2. 품목별 한·인도 교역 추이 .....	46
3. 한·인도 교역구조 변화 및 특징 .....	54
4. 한·인도 교역 구조 분석 .....	86
■ 제4장 한·인도 양국의 교역량 예측 .....	93
1. 개요 .....	94
2. VEC(벡터 오차수정) 모형의 추정을 통한 교역량 예측 .....	94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03
1. 결론 .....	104
2. 시사점 .....	105
3. 본 연구의 한계점 .....	107

참고문헌 .....	109
부 록 .....	113
Executive Summary .....	119

## 표 차례

표 2-1. 한국의 주요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	20
표 2-2. 인도의 「2009~2014 대외통상정책(TFP)」 주요 내용 .....	24
표 2-3. 인도의 주요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	25
표 2-4. 한·인도 CEPA 단계별 양허유형 .....	29
표 2-5. 한국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	30
표 2-6. 인도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	30
표 2-7. 한·인도 CEPA 내용 요약 .....	32
표 3-1. 한국 교역 규모 .....	36
표 3-2. 한국의 상위 10대 교역 국가 규모 및 비중 .....	36
표 3-3. 인도 교역 규모 .....	40
표 3-4. 인도의 상위 10대 교역 국가 규모 및 비중 .....	41
표 3-5. 한·인도 교역, 수출, 수입 규모 및 증가율 .....	45
표 3-6. 한국의 대인도 10대 수출품목변화 .....	47
표 3-7. 한국의 대인도 생산단계별 수출 구성 .....	49
표 3-8. 한국의 대인도 10대 수입품목변화 .....	52
표 3-9. 한국의 대인도 생산단계별 수입 구성 .....	53
표 3-10. 한국의 대인도 산업별 무역특화지수(TSI) .....	56
표 3-11. 한국의 대인도 무역특화지수 분포 .....	58
표 3-12. 한국과 인도의 세계시장 수출 경쟁력 비교(2012년 기준) .....	60
표 3-13. 최근 한국과 인도의 현시비교우위지수 비교 .....	60
표 3-14. 한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 추이 .....	62
표 3-15. 인도의 현시비교우위지수 추이 .....	65
표 3-16. 한국과 인도의 상대국 수입시장 수출우위 품목 비교(2012년 기준) ..	68
표 3-17. 최근 한국과 인도의 시장비교우위지수 비교 .....	68
표 3-18. 한국의 대인도 MCA 지수 추이 .....	70

표 3-19. 인도의 대한민국 MCA 지수 .....	73
표 3-20. 한국과 인도의 산업내무역 추세 .....	76
표 3-21. 한국과 인도의 무역결합도 상위 품목(2012년 기준) .....	80
표 3-22. 최근 한국과 인도의 무역결합도지수 비교 .....	80
표 3-23. 한국의 대인도 무역결합도지수 추이 .....	83
표 3-24. 인도의 대한민국 무역결합도지수 .....	85
표 4-1. 기초통계량 .....	96
표 4-2. ADF 검정 결과 .....	97
표 4-3. 1차 차분값 ADF 검정 결과 .....	98
표 4-4. Johansen 공적분검정 결과 .....	99
표 4-5. 한·인도 교역량 예측치(2013~20년) .....	100
부록 표 1. 한인도 교역량 추이(예측치 포함): 1973~2020년 .....	114
부록 표 2. VEC모형 추정결과 .....	116

그림 2-1. 한국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	22
그림 3-1. 한국의 상위 3개국 및 인도 교역 비중 추이 .....	38
그림 3-2. 2012년 한국의 국별 수출입 비중 .....	39
그림 3-3. 인도의 상위 3개국 및 한국의 교역비중 추이 .....	43
그림 3-4. 2012년 인도의 국별 수출입 비중 .....	43
그림 3-5. 2000~12년 한국의 대인도 무역흑자 추이 .....	46
그림 3-6. 한국의 대인도 도로 주행 차량 수출액 추이 .....	48
그림 3-7. 한국의 대인도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 수입액 추이 .....	53
그림 3-8. 한·인도 전체 G-L 지수 추이 .....	76
그림 3-9. 산업내무역 활성화 분야의 G-L 지수 추이 .....	77
그림 3-10. 산업간무역 활성화 분야의 G-L 지수 추이 .....	78
그림 3-11. 세계시장 내 한국과 인도의 업종별 경합도 비교 .....	87
그림 3-12. 한국과 인도의 수입시장 내 업종별 경쟁관계 .....	88
그림 3-13. 한국과 인도의 분업관계 구분 .....	90
그림 4-1. 주요 변수 시계열 자료(추이) .....	96
그림 4-2. 한·인도 교역량 추이(예측치 포함) .....	100
그림 4-3. 한·인도 교역량 예측치(자연로그)와 유의수준 .....	101

#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 1. 연구 배경

1973년 한·인도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은 1991년 인도의 개혁개방 이후 활성화되었다. 이후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와 양국의 교역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특히 양국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2010년 1월 1일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발효시켰다. 양국 관계는 주로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상호 경제협력이 양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국과 인도의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올해 2013년 한·인도 수교 체결 40주년을 맞이하였고,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보고서는 양국의 경제협력 중 가장 활발한 교역부문의 협력 관계를 연구하였다.

수교 이후 1991년 인도의 개혁개방 전 양국의 교역 규모는 매우 미미했으나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0년 23억 1,000만 달러에서 2012년 188억 4,000만 달러로 여덟 배 이상 증가하였다.<sup>3)</sup> 2012년 한국의 대인도 수출 규모는 2000년의 13억 2,000만 달러에서 2012년 119억 2,000만 달러로 아홉 배 증가했으며 한국의 수입 규모는 9억 8,000만 달러에서 69억 2,000만 달러로 일곱 배 증가하였다.<sup>4)</sup> 양국 정부는 2015년까지 교역 규모를 4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하고,<sup>5)</sup> 경제협력을 강화한다고

3) CEIC Database(2013. 11. 8)

4) CEIC Database(2013. 11. 8)

5) 2012년 만모한 싱 총리가 핵안 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으며 이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교역 목표액을 2015년 400억 달러로 합의하였다(조충제 외 2010, p. 231).

밝혔으나 이에 대한 실행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지난 40년간의 한·인도 교역 성과를 분석하고 2020년까지의 양국 교역량을 예측하여 양국의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2012년에 예정되었던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이 지금까지 지연되는 현 시점에서 본고와 같은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2014년은 인도에 총선이 실시되어 신정부가 들어설 예정이므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이 개최될 개연성이 매우 크고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2. 선행 연구

한·인도 교역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장기적인 시차를 둔 연구는 드물다. 또한 양국 교역량을 예측한 연구는 본 보고서 외에 유태환 외(2005)와 이용·송영철·조충제(2011) 정도이다.

유태환 외(2005)는 인도경제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분석하고 한·인도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중력모형(gravity model) 추정으로 한·인도 잠재교역량을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추정한 잠재교역량을 실제 교역량과 비교하여 모형 추정의 정확성에 대한 비교를 하였을 뿐 중장기 교역량에 대한 예측은 하지 않았다.

Ahmed(2010)는 한·인도 CEPA 체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WITS-SMART와 GTAP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CEPA 체결로 한국은 후생(welfare)이 증가하지만 인도는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CEPA 체결이 소비자 잉여와 교역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Sahoo *et al.*(2009)은 양국의 교역 및 투자 분석을 통해 향후 경제협력 강화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수요 구조와 양국의 보완 가능한 분야의 비교우위 변화에 따라 양국의 교역은 증가함을 밝혔으며 향후 서비스 분야 교역 확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요 방법론으로는 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IT(Intra-Industry Trade) Index, TCI(Trade Complementarity Index), TI(Trade Intensity)와 같은 무역 관련 지수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용 · 송영철 · 조충제(2011)는 WITS-SMART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한 · 인도 양국의 관세철폐에 따른 교역량 증가를 추정하였으며 한 · 인도 CEP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역의 평균성장률을 적용하여 2020년까지의 양국 교역량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2010년까지의 교역량을 기반으로 예측을 하였기 때문에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인도의 경기침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조충제 · 이준규 · 송영철(2009)은 한 · 인도 CEPA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조충제 외(2010)는 한 · 인도 CEPA와 각국의 통상정책을 정리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본 연구와는 달리 한 · 인도 CEPA에 한정되어 단기간 경제효과만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의 교역 관계를 정량적, 정성적 방법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고는 한국과 인도의 교역에 대한 정성적 분석 외에도 VEC(Vector Error Correction,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이용해 양국 교역량을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

고서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교역 관계를 지난 40년에 걸쳐 분석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는 차별성이 뚜렷하다.

### 3. 연구 방법 및 구성

본고는 수집 가능한 과거의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하여 지난 40년간의 한·인도 교역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리하였고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교역 데이터를 국가별, 품목별, 생산단계별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시기별 변화를 비교하였다. 또한 양국 교역구조를 경쟁 관련 지수(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와 보완·분업 관련 지수(산업내무역지수, 무역결합도지수)를 품목별로 구하고 시기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VEC(Vector Error Correction,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추정을 통해 2013~20년까지의 양국 교역량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교역 목표액을 설정할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국의 교역 부문 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제2장 양국의 통상정책 및 한·인도 CEPA

1. 한·인도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2. 한·인도 CEPA



# 1. 한·인도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 가. 한국의 통상정책

한국의 통상정책은 교역시장을 개방하여 다자간무역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한국은 기본적으로 WTO의 규범 안에서 통상자유화를 추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러한 노력은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보호무역주의 반대, FTA 체결 확대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한국의 주요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기체결된 주요 FTA		
대상	진행상황	
1	미국	시행 중(2012. 3. 15 발효)
2	페루	시행 중(2011. 8. 1 발효)
3	EU	시행 중(2011. 7. 1 발효)
4	인도	시행 중(2010. 1. 1 발효)
5	ASEAN	시행 중(국가별 발효)
6	EFTA	시행 중(2006. 9. 1 발효)
7	싱가포르	시행 중(2006. 3. 2 발효)
8	칠레	시행 중(2004. 4. 1 발효)
9	터키	시행 중(2013. 5. 1 발효)
협상 중인 주요 FTA		
대상	진행상황	
1	인도네시아	협상 중(2013. 11. 6차 협상 개최)
2	중국	협상 중(2013. 11. 8차 협상 개최)
3	베트남	협상 중(2013. 10. 3차 협상 개최)
4	중국-일본	협상 중(2013. 11. 3차 협상 개최)
5	RCEP*	협상 중(2013. 9. 2차 협상 개최)

주: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협정이다. 참여 국가는 ASEAN 10개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 국가이다.

자료: FTA 종합지원포털(<http://www.ftahub.go.kr>), (검색일: 2013. 12. 15)

한국은 DDA를 통한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에 큰 관심이 있으며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최소화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또한 2003년 자유무역협정(FTA) 로드맵을 수립, 유럽, 아시아, 미국, 남미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역협력체와 동시다발적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추구하는 FTA는 상품, 서비스 등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경제통합이다. 200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2013년 기준 한국은 총 9개 국가 및 지역협력체와 FTA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현재 다섯 개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13년 한국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은 6월 14일 발표한 ‘신통상 로드맵’으로 재정립되었다. 기본적으로 과거 개방형 통상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되 교역 상대국과 상생할 수 있는 통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산업과 연계한 통상협력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FTA 중심의 통상정책이 다양한 국가, 협력체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시장선점효과를 거두는 등의 성과를 얻는 데 기여했지만 그동안의 정책이 ‘통상교섭’ 중심에 치우쳐 있었다는 문제점을 인식,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을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sup>6)</sup> 한국정부는 산업, 자원, 에너지 협력과 연계를 통해 전략적으로 신흥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생형 FTA’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신흥국가에 대한 맞춤형 산업, 통상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sup>7)</sup>

---

6) 산업통상자원부(2013), p. 2.

7) 산업통상자원부(2013), p. 3.

그림 2-1. 한국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그간의 통상정책 전략	新통상정책 전략
추진전략	FTA 교섭중심의 통상	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통상
통상교섭	· FTA Hub 구축	· 지역통합의 핵심축(linchpin)
통상협력	· 거대경제권 위주	· 신흥국 맞춤형 통상협력모델 개발
성과공유	· FTA 효과의 체감도 저하	· 통상정책의 실효성 제고(일자리·중소기업)
추진방식	· 분절적 통상추진체계 · 정부주도	· 통상교섭-이행-대책 일원화 · 민관협업과 소통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3), 「새정부의 신통상 로드맵」, p. 3.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WTO 규범 안에서 반덤핑 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2004~07년 기간에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 건수는 21건이었으나 이후 2008년 12건, 2009년 4건, 2011년 2건으로 계속 감소하였다.<sup>8)</sup>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었던 2012년 한국의 반덤핑 부과 건수 역시 30건(2012년 6월 기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sup>9)</sup> 한국의 피제소건 역시 21건(2012년 기준)으로 2011년 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밖의 세이프가드는 2012년 11월 기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한편 2012년 기준 한국의 평균 MFN 관세율은 13.3%로 나타났으며 이 중 농산품 관세율이 52.7%로 높았고 농산품을 제외한 상품에는 관세율이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1)12)</sup>

8) WTO(2013), p. 17.

9) *Ibid.*, p. 65.

10) 이투데이(2013), 「한국 반덤핑 피소 세계 2위...‘보호무역주의 강화 탓’」, (8월 25일)을 참고 및 인용하였다.

11) WTO(2013), Country Profile: Korea, Republic of를 참고하였다.

## 나. 인도의 통상정책

인도는 1991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관세 인하와 각종 수입규제 정책 폐지 등 교역 규모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전히 반덤핑, 세이프가드, 수입금지 조치 등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지만 인도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은 1990년대 동방정책과 2000년대 주변 국가 및 지역과 FTA 확대 등을 통해 통합적인 경제협력의 형태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최근 인도의 통상정책을 「5개년 대외통상 정책(FTP: Foreign Trade Policy)」과 FTA 정책 및 추진현황 등을 통해 살펴보고,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인도의 비관세 장벽 현황과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인도와의 교역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다.

인도의 「5개년 대외통상정책」은 인도정부가 세계 통상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와 전략, 목적 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정책은 2004~09년 기간을 대상으로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특히 이 기간 인도의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23.9%를 기록하면서 약 1,800억 달러까지 성장하였다. 또한 세계상품교역시장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0.9%에서 2008년 1.5%로 확대되었으며 서비스는 1.3%에서 2.7%로 두 배 넘게 성장하였다.<sup>13)</sup> 정책적으로는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등을 개발하면서

---

12) MFN(Most Favored Nation: 최혜국) 관세율은 WTO 회원국 간 적용하는 일반적인 관세율을 말한다.

13)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2013), [http://commerce.nic.in/publications/pdf/annualreport\\_overview-2012-13.pdf](http://commerce.nic.in/publications/pdf/annualreport_overview-2012-13.pdf). (Accessed June 8, 2013)

표 2-2. 인도의 「2009~2014 대외통상정책(TFP)」 주요 내용

- 수출확대를 통한 관련 분야 고용확대 유도
- 국내 제조업 육성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의존도 감소
-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등 새로운 27개 국가를 핵심교역시장(Focus Market Scheme)에 포함.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섬유, 전기기기 등을 핵심교역상품(Focus Product Scheme)에 포함.(부가가치 상품)
- 해당 핵심교역시장, 상품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 확대
- 전기기기, 의약품, 의류, 섬유, 플라스틱, 수공예품, 화학제품, 가죽제품 등에 대한 무관세 적용(자본재수출 촉진제도의 일환)
- 수출기업에 대한 금리 지원(2%)
- 통상절차 간소화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 인도 북동부지역을 수출 활성화 지역으로 육성
- 녹색기술 상품 수출 활성화 지원(태양에너지, 바이오메스, 풍력터빈, 수력발전 관련 장비 포함)

자료: Government of India(2009), pp. 7-14.

수출, 고용,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도는 이후 두 번째 통상정책인 「대외통상정책 2009-2014」를 발표, △ 수출 시장 및 상품 다변화 △ 재정 인센티브 △ 제도개혁 △ 통상절차 간소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세계교역시장에서 인도의 비중을 더욱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FTA를 적극 체결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sup>14)</sup> 이외에도 인도정부는 관련 인프라 개발 확대, 거래비용 감축,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sup>15)</sup>

2000년대 들어 인도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FTA는 인도의 동방정책 및 5개년 대외통상정책과 그 맥을 같이한다. 초기 인도의 FTA는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주변국은 물론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와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특징을 보였다. 그 결과 인근 개별 국가는 물론

14) 조충제 외(2010), p. 65.

15) WTO(2011), p. 10, p. 24.

표 2-3. 인도의 주요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기체결된 주요 FTA		
대상	진행상황	
1	스리랑카	시행 중(상품분야)(2001년 발효), ※ 서비스, 투자분야 협상완료-미서명
2	네팔	시행 중(2002. 3. 6~2007. 3. 5 기간 시행 후, 2007. 3. 6~12. 3. 4 기간 갱신)
3	아프가니스탄	시행 중(2003. 3. 12 발효)
4	태국	시행 중(82개 상품 무관세)(2004. 8 발효)
5	싱가포르	시행 중(2005. 8. 1 발효)
6	SAFTA <sup>1)</sup>	시행 중(2006. 7 발효)
7	부탄	시행 중(2006. 7. 29 발효)
8	칠레	시행 중(2007. 8. 17 발효(칠레), 2007.9.11 발효(인도))
9	MERCOSUR <sup>2)</sup>	시행 중(2009. 6. 1 발효)
10	한국	시행 중(2010. 1. 1 발효)
11	아세안	시행 중(상품분야)(2010. 1. 1 발효), ※ 투자, 서비스분야 협상 중
12	일본	시행 중(2011 발효)
협상 및 검토 중인 주요 FTA		
대상	진행상황	
1	말레이시아	협상 중
2	EU	협상 중
3	EFTA <sup>3)</sup>	협상 중
4	GCC <sup>4)</sup>	협상 중
5	모리셔스	협상 중
6	이집트	협상 중
7	BIMSTEC <sup>5)</sup>	협상 중
8	SACU <sup>6)</sup>	협상 중
9	뉴질랜드	협상 중(2011. 8) 6차 협상 실시
10	호주	협상 중(2011. 7) 1차 협상 실시
11	인도네시아	협상 개시 예정, (2009. 9)공동연구 완료
12	캐나다	협상착수 합의(2010. 11)
13	러시아	공동연구 완료(2007. 7)
14	중국	공동연구 완료(2007. 10)
15	터키	공동연구 개시 합의

주: 1)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outh Asian Free Trade Area):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가 포함됨.

2) 남미공동시장(Southern Common Market):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포함됨.

3)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가 포함됨.

4)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포함됨.

5)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에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이 포함됨.

6) 남아프리카관세동맹(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가 포함됨.

자료: 조충제 외(2010), p. 67,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a and Indnstry(June 8).

지역협력체인 SAFTA와 ASEAN과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up>16)</sup> 또한 인도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2000년대 후반 한국,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아시아를 넘어 EU와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FTA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 지역협력체와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한 결과 2013년 기준 인도는 15개의 주요 FTA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7개 국가 및 지역협력체와 FTA를 추진, 협상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EU와의 FTA, ASEAN과 서비스 부문 FTA를 협상 중이며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단계이다. 이외에도 호주, 뉴질랜드와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인도가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FTA체결을 통해 교역시장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반덤핑, 세이프가드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WTO에 따르면 2012년(6월 기준) 인도가 실시한 반덤핑관세 부과 건수는 222개에<sup>17)</sup> 달하며 부과 대상 국가는 한국, 대만, 중국, 유럽,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부과 대상 품목 역시 철강, 금속, 파이프, 섬유류, 화학품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최근 2013년 10월 PTA(고순도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2012년에는 무수프탈산, 폴리염화비닐, 나일론 등의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sup>18)</sup> 이 밖의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건수는 2012년 11월 기준 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 기준 인도의 평균 MFN 관세율<sup>19)</sup>은 13.7%였으며 이 중

---

16) SAFTA(South Asian Free Trade Area);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7) WTO. 'Country profile: India'(2013. 8. 3).

18)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2013. 8. 3).

농산품 관세율은 33.5%, 농산품을 제외한 상품의 관세율은 10.4%로 나타났다.<sup>20)</sup>

## 2. 한·인도 CEPA

### 가. 개요

인도는 한국의 다섯 번째 FTA 체결 국가이며 지역공동체인 ASEAN 과 EFTA를 제외하면 단일국가 기준 세 번째 FTA 체결국이다.<sup>21)</sup> 한국은 단일국 기준 인도의 네 번째 FTA 체결국이기도 하다. 인도는 아프가니스탄, 칠레, 네팔과도 무역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특혜무역협정)이다.<sup>22)</sup>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보다 늦게 무역자유화를 채택했음에도 자유무역협정만 보면 인도가 한국보다 활발하게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인도 CEPA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을 아우르는 FTA이며 인도에는 OECD 회원국가와 첫 FTA이자 한국에는 BRICs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이다. 양국 경제협력에서 한·인도 CEPA만큼 비중 있는 이벤트는 아직까지 없었으며 한·인도 관계에서 이정표를 세운 협정이라 할 수 있다.

---

19)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WTO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20) WTO(2013), *Country profile: India*.

21)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22) FTA가 협정국 간 관세를 철폐하는 협정인데 반해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는 참여국가의 특정 상품에 대해 특정 또는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협정으로 FTA보다 광의의 개념이다(이재기 2004, p. 170).

한·인도 CEPA와 관련해서 꾸준한 연구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 중요성을 되짚어본다.

## 나. 주요 내용

한·인도 CEPA에 대한 논의는 2003년 12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한·인도 외무장관회담에서 공동연구그룹 설치 문제를 검토하면서 가시화되었으며, 2006년 2월 한국과 인도 정상이 CEPA 협상 개시를 선언함에 따라 그해 3월부터 시작되었다.<sup>23)</sup> 이후 2009년 9월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10년 1월1일부터 한·인도 CEPA는 발효되어 현재(2013년 11월)까지 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2011년 인도 델리에서 한·인도 1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향후 양허안과 투자부문 등에 대한 업그레이드 협상에 동의하였으나 2012년 서울에서 열리기로 하였던 2차 공동위원회는 현재까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한·인도 CEPA 관세의 양허유형은 E-0, E-5, E-8, RED, SEN, EXC의 여섯 가지이며, 양허의 기준관세율은 2006년 4월 1일 한국과 인도의 MFN 관세율이다.<sup>24)</sup> E-0는 협정발효일인 2010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상품을 포함한다. E-5에는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를 인하하여 이행 4년차인 201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상품이 속한다. E-8은 8단계를 거치면서 매년 균등하게 관세를 인하하여, 이행 7년차인 2017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상품을

23)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pp. 9~10.

24) 외교부(2009), p. 366.

표 2-4. 한·인도 CEPA 단계별 양허유형

유형	내용
E-0	협정발효일인 2010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상품
E-5	협정발효일을 기점으로 5단계에 걸쳐 균등하게 관세가 인하되어 이행 4년차인 2014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상품
E-8	협정발효일을 기점으로 8단계에 걸쳐 균등하게 관세가 인하되어 이행 7년차인 2017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상품
RED	협정발효일로부터 관세가 8단계에 걸쳐 균등하게 인하되어 이행 7년차인 2017년 1월 1일 관세율이 1~5%가 되는 상품
SEN	한국은 8단계, 인도는 10단계에 걸쳐 균등하게 관세가 인하되어 최종관세율이 기준관세율의 50%로 인하되는 상품
EXC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서 면제되는 상품

주: 기준관세율 (2006년 4월 1일 기준 한국과 인도의 MFN 관세율).  
 자료: 외교부(2009), p. 365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포함한다. RED에는 협정발효일인 2010년 1월 1일부터 8년에 걸쳐 관세를 균등하게 인하하되 최종관세율이 1~5%가 되는 상품들이 포함된다. SEN은 8단계(한국) 또는 10단계(인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여 최종관세율이 기준관세율의 50%까지 인하하는 품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기준관세율이 20%인 품목이 RED에 속하면 2010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8단계에 걸쳐 인하되어 이행 7년차인 2017년 1월 1일에는 최종 양허관세율이 1~5% 사이에서 결정된다. 만약에 이 품목이 인도 측의 SEN에 속하면 10단계에 걸쳐 관세가 인하되어 2019년 1월 1일 최종 양허관세율이 10%가 된다. 마지막으로 EXC에 속하는 상품은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 대한 의무가 면제된다. 일정에 따른 한국과 인도의 유형별 관세인하율은 [표 2-5]와 [표 2-6]에서 보여준다.

표 2-5. 한국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단위: %)

양허 유형	발효즉시*	이행 1년 (2010)	이행 2년 (2011)	이행 3년 (2012)	이행 4년 (2013)	이행 5년 (2014)	이행 6년 (2015)	이행 7년**
E-0	100	-	-	-	-	-	-	-
E-5	20	40	60	80	100	-	-	-
E-8	12.50	25	37.50	50	62.50	75	87.50	100
RED	a × 12.5	a × 25.0	a × 37.5	a × 50.0	a × 62.5	a × 75.0	a × 87.5	a × 100
SEN	6.30	12.50	18.80	25.00	31.30	37.50	43.80	50.00

주: 1) a 기준세율, (1~5)%.

2) \* 2010년 1월 1일부터, \*\* 2016년 1월 1일부터.

자료: 외교부(2009), p. 366.

표 2-6. 인도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단위: %)

양허 유형	발효 즉시	이행 1년	이행 2년	이행 3년	이행 4년	이행 5년	이행 6년	이행 7년	이행 8년	이행 9년*
E-0	100									
E-5	20	40	60	80	100					
E-8	12.5	25.0	37.5	50.0	62.5	75.0	87.5	100		
RED	a × 12.5	a × 25.0	a × 37.5	a × 50.0	a × 62.5	a × 75.0	a × 87.5	a × 100		
SEN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주: 1) a 기준세율 -(1~5)%.

2) \* 2018년 1월 1일부터.

자료: 외교부(2009), p. 366.

수입액 기준 상품부문 양허율을 보면 2019년까지 한국의 대인도 양허율은 89.7%이며 인도의 한국에 대한 양허율은 85.5%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인도의 양허율은 상대국가의 우리에게 대한 양허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sup>25)</sup> 하지만 2011년 8월 발효된 일·인도 CEPA와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없고 인도의 FTA가 주로 개도국과 이루어졌던 점을

25) 조충제, 이준규, 송영철(2009), p. 3.

감안하면 그리 낮은 양허율이라 할 수는 없다.

원산지 규정은 일·인도 CEPA와 동일한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비율과 HS 코드 6단위 기준 세 번 변경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sup>26)</sup>

서비스 부문은 상호 개방이 이루어져 한국은 인도에 10개 분야 104개 영역을 개방하였으며, 인도는 한국에 11개 분야 81개 영역을 개방하였고, 특히 2010년부터 향후 4년간 은행지점 10개 승인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서비스 부문은 일·인도 CEPA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의 개방에 그쳤다.<sup>27)</sup>

인력이동은 상호 여덟 개 분야에서 163개 전문직 직종에 대한 이동을 허가하였으나 주로 고급인력에 한정되어 있어 각국의 부족 인력에 대한 수요에 부합할지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인도 CEPA 양허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MFN 세율이 한·인도 CEPA 협정특혜세율(이하 CEPA 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양국이 협상을 개시하였던 2006년 4월 1일 MFN 세율을 기준으로 양허안을 작성한데 기인한다. 이후 인도는 MFN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한·인도 CEPA 발효 후 CEPA 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은 품목들이 있다. 실례로 2011년 하반기에는 HS 6단위 기준 한국의 대인도 상위 50대 수출품목 중 7개 품목의 CEPA 세율이 MFN 세율보다 같거나 높았으며 금액으로는 약 16억 달러(전체 수출의 17.3%)를 차지하였다.<sup>28)29)</sup>

26) 조충제 외(2012), p. 249.

27) 앞의 논문.

28) 이웅, 조충제, 송영철(2011), p. 10.

29) HS(Harmonized System) 코드는 국가 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품분류체계임(관세청

표 2-7. 한·인도 CEPA 내용 요약

협상개시	2006년 3월						
협상타결	2009년 9월						
발효	2010년 1월						
상품 부문 양허율	관세철폐	즉시철폐 (E-0)	8년 내 철폐 (E-5, E-8)	8~10년 내 인하·감축 (RED, SEN)	총양허율 2019년 까지	양허제외	전체
수입액 비중(%)							
인도 측 양허	74.5	38.4	36.1	10.9	85.5	14.5	100
한국 측 양허	84.7	63.0	21.7	5.0	89.7	10.3	100
품목 수 비중(%)							
인도 측 양허	71.5	3.9	67.6	9.3	85.3	14.7	100
한국 측 양허	88.6	60.6	28.0	4.5	93.2	6.8	100
원산지 규정	역내부가가치비율이 FOB 가격기준 35% 이상 & HS 6단위 세 번 변경						
서비스 부문 양허	한국: 10개 분야 104개 영역 개방 인도: 11개 분야 81개 영역 개방; 4년간 은행지점 10개 호의적 고려						
인력이동	상호 8개 분야 163직종 개방						
추후 업그레이드 일정	2011년 한·인도 1차 공동위 개최(이후 공동위 개최 안됨)						

주: 1) 관세철폐 = 즉시철폐 + 8년 내 철폐, 총양허율 = 관세철폐 + 10년 내 인하감축, 전체 = 총양허율 + 양허제외.  
2) 비중은 2006년 각국의 수입액 기준임.  
자료: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pp. 11, 27~30, 34~38, 40~41. 조총제, 이준규, 송영철(2009), pp. 3~5. 내용을 인용, 정리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반대로 인도 상품은 대부분 품목에서 CEPA 세율이 MFN 세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우리에게 불리한 CEPA와 MFN 세율의 모순구조는 2013년 이후에는 거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012~13 회계 연도 인도MFN 세율과 CEPA 협정세율을 비교해 보면 위에서 언급했던 7개 품목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되었으므로 상위 50개 품목 이하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다.<sup>30)</sup> 특히 2014년 1월 1일부터는 E-5에 해당하

FTA 포털 FTA 용어집(2013. 11. 21).

는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어 MFN 세율이 CEPA 세율보다 낮은 문  
제점은 개선될 것이다.

---

30) 저자가 위에서 언급한 7개 품목에 대해 CEPA 협정세율과 인도 MFN 세율을 비교해봄.  
인도 MFN 관세율(2013. 11. 12.), CEPA 세율(외교부 2009, pp. 367~1259).

## 제3장 양국간 교역 발전 과정 및 특징

1. 한·인도 교역 변천사
2. 품목별 한·인도 교역 추이
3. 한·인도 교역 구조 변화 및 특징
4. 한·인도 교역 구조 분석



# 1. 한·인도 교역 변천사

## 가. 한국의 대세계 및 대인도 교역

한국은 1970년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도입하였고 이후로 한국의 수출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성장세가 지속되어 2000년 3,300억 달러였던 교역 규모가 200% 이상 성장하면서 2011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교역 규모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또한 2012년 한국의 교역 규모는 1조 674억 달러로 이탈리아를 제치고 무역 8강에 진입하였다.

표 3-1. 한국 교역 규모

(단위: 십억 달러, %)

연도	교역	수입	수출	대외의존도
1970	2.8	2.0	0.8	37.4
1980	39.5	22.1	17.4	72.0
1990	142.2	74.4	67.8	57.0
2000	332.7	160.5	172.2	74.3
2012	1,067.4	519.6	547.6	109.9

주: 대외의존도는 (수출+수입)/GDP×100.

자료: IMF, DOTS DB<sup>31)</sup>(2013. 10. 14), World Bank DB(2013. 10. 14).

표 3-2. 한국의 상위 10대 교역 국가 규모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

	1970	1980	1990	2000	2012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전 세계	28,27(100)	395,02(100)	1,422,19(100)	3,327,42(100)	10,674,42(100)
1	일본 10,49(37,11)	미국 95,15(24,09)	미국 363,66(25,57)	미국 670,92(20,16)	중국 2,151,07(20,15)

31) DOTS(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B(2013. 10. 14).

표 3-2. 계속

	1970	1980	1990	2000	2012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2	미국 9.80(34.66)	일본 88.97(22.52)	일본 312.12(21.95)	일본 522.94(15.72)	일본 1,031.59(9.66)
3	독일 0.95(3.34)	사우디아라비아 42.64(10.79)	독일 61.32(4.31)	중국 312.53(9.39)	미국 1,024.61(9.60)
4	말레이시아 0.59(2.09)	쿠웨이트 20.02(5.07)	홍콩 43.94(3.09)	홍콩 119.69(3.60)	사우디아라비아 488.19(4.57)
5	프랑스 0.54(1.90)	독일 15.12(3.83)	호주 35.46(2.49)	사우디아라비아 109.04(3.28)	홍콩 346.65(3.25)
6	홍콩 0.47(1.67)	홍콩 9.22(2.33)	캐나다 31.96(2.25)	독일 97.78(2.94)	싱가포르 325.64(3.05)
7	영국 0.46(1.62)	호주 9.10(2.30)	영국 29.77(2.09)	싱가포르 93.71(2.82)	호주 322.38(3.02)
8	이란 0.45(1.58)	영국 8.76(2.22)	싱가포르 27.01(1.90)	인도네시아 87.92(2.64)	인도네시아 296.31(2.78)
9	필리핀 0.43(1.51)	인도네시아 8.50(2.15)	인도네시아 26.80(1.88)	호주 85.65(2.57)	카타르 262.35(2.46)
10	캐나다 0.43(1.51)	캐나다 7.23(1.83)	사우디아라비아 24.64(1.73)	말레이시아 83.93(2.52)	독일 251.55(2.36)
인도	23위 0.07(0.23)	21위 2.26(0.57)	25위 7.19(0.51)	25위 23.11(0.69)	15위 188.43(1.77)

자료: IMF DOTS DB(2013. 10. 14).

대내적으로 교역이 한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외의존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1970년 37.4%에 불과하던 대외의존도는 점차 증가하여 지난 2008년 100을 돌파하였으며 2012년 110을 기록하였다.

[그림 3-1]은 한국의 국별 교역비중 추이로 2012년 기준 한국의 교역 상위 3개국과 대인도의 교역비중 추이를 나타낸다. 한국의 교역은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1990년까지 일본과 미국이 한국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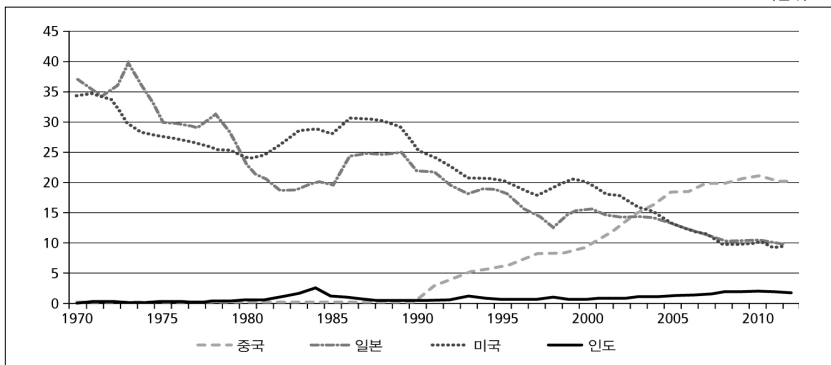
체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한편 중국의 개방과 함께 대중국 교역이 증가하면서 중국은 2004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한국의 1위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2012년 현재 중국 20.2%, 일본 9.6%, 미국 9.5%로 상위 세 개 국가가 한국 전체 교역의 40%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교역은 여전히 일부 국가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 상위 3개국과 수입 상위 3개국이 중국, 일본, 미국으로 동일하다.

한편 지난 10년간 2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던 중국과의 교역이 2010년 이후 다소 둔화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인도와 같은 다른 신흥국과의 교역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000년까지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1% 미만이던 인도와의 교역은 인도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된 2000년 이후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다. 한·인도 양국 교역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국으로 한국의 전체 교역량에서 인도가

그림 3-1. 한국의 상위 3개국 및 인도 교역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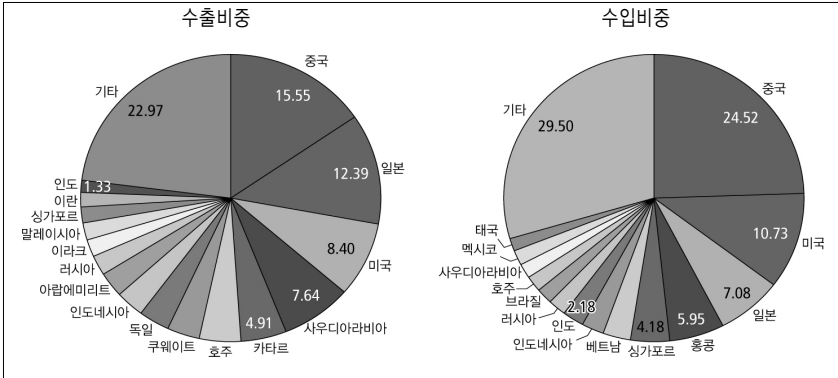
(단위: %)



주: 2012년 기준 상위 10개국과 인도.  
 자료: IMF DOTS DB(2013, 10, 14).

그림 3-2. 2012년 한국의 국별 수출입 비중

(단위: %)



자료: IMF DOTS DB(2013. 10. 14).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0.7%에서 2012년 1.7%로 증가하였다.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인도가 한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 증가하여 2010년과 2011년에는 1.9%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 다시 CEPA 이전 수준인 1.7%가 되었는데, 이는 2012년 인도의 경기 둔화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된 2010년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 규모는 각각 20% 이상 증가하였다. 수출은 2009년 80억 달러에서 2010년 114억 달러로(전 세계 수출 대비 인도 비중은 2.20%에서 2.45%로 증가) 증가했으며, 수입은 2009년 41억 달러에서 2010년 57억 달러(전 세계 수입 대비 인도 비중은 1.28%에서 1.33%로 증가)로 증가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가 인도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2011년과 2012년 한국의 대인도 수출 비중은 2.28%, 2.18%로 다소 감소했다. 2012년 인도가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도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기회복과 함께 한·인도 교역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인도의 대세계 및 대한민국 교역

인도는 1990년대 대외무역의 시장 자유화를 시행하였으나, 본격적으로 가속화된 것은 1998년 인도인민당(BJP) 정부 이후로,<sup>32)</sup> 2000년대 수입 통제 및 물량제한의 철폐 및 지속적인 관세인하 등 적극적 수입 개방 정책을 펼쳤다.<sup>33)</sup> 이에 힘입어 인도의 교역 규모는 2000년 930억 달러에서 2012년 7,880억 달러로 12년간 약 750%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도 교역 규모의 증가세는 세계 2위의 인구대국인 인도 시장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인도의 대외의존도는 1970년 7.5%, 1980년 15.1%, 1990년 15.1%로 폐쇄경제의 형태를 띄었지만 1991년 무역 자유화를 시작하면서 상승하였다.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기 직전인 2000년 인도의 대외의존도는 26.5%로 여전히 그 비중이 낮았지만 2000년 이후 교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2년 55.4%로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인도는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으로 교역 규모가 증가하면서 적자 폭도 증가하여 2012년 무역적자 규모는 약 1,000억 달러에 이른다.

표 3-3. 인도 교역 규모

연도	교역액	수입	수출	(단위: 십억 달러, %)
				대외의존도
1970	4.1	2.1	2.0	7.5
1980	23.3	14.8	8.4	15.1
1990	41.8	24.0	17.8	15.2
2000	93.0	50.3	42.6	26.5
2012	787.7	490.4	297.3	55.4

주: 대외의존도는 (수출+수입)/GDP×100.

자료: IMF DOTS DB(2013. 10. 14), World Bank DB(2013. 10. 14).

32) 인도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

33) 잔드라세카 · 고쉬(2008), p. 201.

표 3-4. 인도의 상위 10대 교역 국가 규모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

	1970	1980	1990	2000	2012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전 세계	41,19(100)	232,62(100)	418,03(100)	929,62(100)	7,876,74(100)
1	미국 8,88(21,57)	미국 28,32(12,18)	미국 53,29(12,75)	미국 122,36(13,16)	아랍에미리트 747,94(9,50)
2	소련 4,36(10,58)	소련 26,43(11,36)	소련 41,89(10,02)	영국 52,86(5,69)	중국 673,11(8,55)
3	일본 3,78(9,19)	일본 15,91(6,84)	일본 34,57(8,27)	벨기에 45,18(4,86)	미국 613,38(7,79)
4	영국 3,75(9,11)	이란 14,84(6,38)	독일 31,88(7,63)	일본 37,83(4,07)	사우디아라비아 418,07(5,31)
5	캐나다 1,86(4,51)	영국 14,82(6,37)	영국 27,74(6,63)	독일 36,45(3,92)	스위스 317,54(4,03)
6	독일 1,80(4,37)	이라크 14,09(6,06)	벨기에-룩셈부르크 26,28(6,29)	아랍에미리트 35,47(3,82)	싱가포르 222,96(2,83)
7	이란 1,46(3,55)	독일 13,31(5,72)	사우디아라비아 17,24(4,12)	홍콩 34,52(3,71)	독일 219,08(2,78)
8	이집트 1,16(2,82)	사우디아라비아 7,36(3,16)	아랍에미리트 14,18(3,39)	스위스 34,36(3,70)	인도네시아 203,46(2,58)
9	호주 0,81(1,97)	싱가포르 6,02(2,59)	프랑스 11,40(2,73)	싱가포르 23,08(2,48)	이라크 200,83(2,55)
10	수단 0,74(1,80)	벨기에-룩셈부르크 5,75(2,47)	이탈리아 10,68(2,55)	중국 22,07(2,37)	홍콩 196,75(2,50)
한국	55위 0,04(0,11)	21위 2,37(1,02)	18위 4,89(1,17)	18위 14,46(1,56)	13위 176,32(2,24)

자료: IMF DOTS DB(2013. 10. 14).

1970년대 인도는 미국, 일본, 영국 순으로 교역을 많이 하였으나, 2012년 중국, 미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그 교역 순위가 달라졌다. 영국과 교역 비중은 1970년 9.1%, 1990년 6.6%, 2012년 1.9%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미국과 교역 비중 역시 1970년 21.6%, 1990년 12.7%,

2012년 7.8%로 감소하며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와 교역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재정위기를 기점으로 영국과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와 교역 비중이 줄어들었다.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석유수입의 증가와 인도의 개혁개방에 따른 아시아 시장과의 교류 증가로,<sup>34)</sup> 1970년대 10대 교역국에는 속하지 않던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이 각각 9.5%, 8.5%로 1, 2위 교역국을 차지하였다. 이는 인도가 중동 및 아시아 국가와 교역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일부 국가에 치중된 교역구조를 가진 반면 인도는 미국에 치중된 모습을 보였던 교역구조가 적극적 교역 개방정책을 펼친 2000년대 이후 아랍에미리트, 중국 등 교역이 일부 국가에 치중하지 않고 다변화된 구조로 변하였다.

1973년 한·인도 수교가 시작된 이래 한국에 대한 교역 규모가 점차 증가하였다. 인도의 폐쇄경제 체제로 교역액의 급격한 증가는 없었으나 교역 순위가 1970년 55위에서 1980년 21위, 1990년 18위로 올랐으며 21세기에 들어서 양국 교역이 증가하면서 한국은 2009년 10위<sup>35)</sup> 교역국(수출 10위, 수입 10위)으로 부상하였다. 이후 순위가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2년 기준 한국은 인도의 14위(수출 13위, 수입 12위) 교역국이다.

인도의 대한민국 교역비중은 2000년 1.6%에서 2012년 2.2%로 소폭의 증가가 있었을 뿐 큰 성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인도의 전체 교역 규모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만큼 인도의 대한민국 교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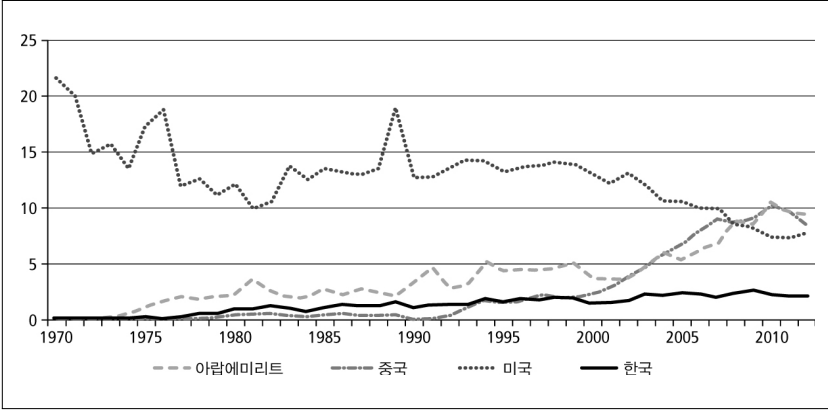
---

34) “1991년 인도정부가 ‘동방중시’ 정책을 표명한 이래 아시아 각국(특히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점점 긴밀해짐” 예소 히데끼(2009, p. 89).

35) 대만을 포함한 한국의 교역 순위는 2009년 11위 2012년 15위, 본 보고서에서는 대만이 제외된 IMF DOTS DB(2013. 10. 14)를 사용함.

그림 3-3. 인도의 상위 3개국 및 한국의 교역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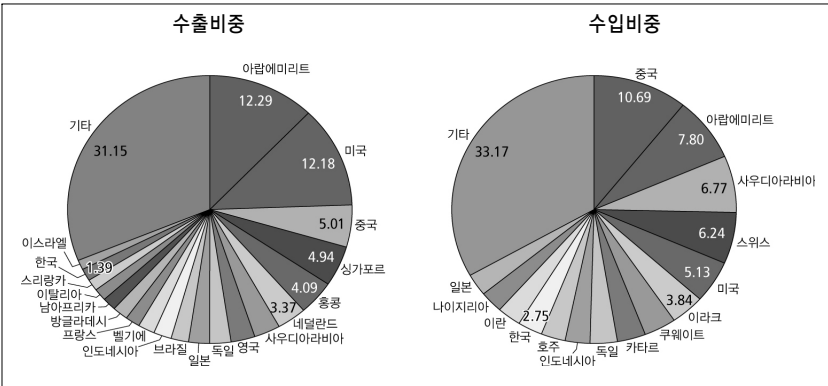
(단위: %)



주: 2012년 기준 상위 3개국과 한국.  
 자료: IMF DOTS DB(2013년 10월 14일).

그림 3-4. 2012년 인도의 국별 수출입 비중

(단위: %)



자료: IMF DOTS DB(2013, 10, 14).

2000년 14억 4,000만 달러에서 2012년 17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2012년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인도의 대한민국 수입은 전년도 124억 달러에서 134억 달러로 8% 증가하여 전체 수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2.67%에서 2.75%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인도의 대 한국 수출은 48억 달러에서 41억 달러로 14%나 줄어 전체 수출 대비 대 한국 수출 비중은 1.57%에서 1.39%로 감소하였다.

#### 다. 한·인도 교역(한국 기준)

1973년 한·인도 수교 이래로 2000년 이전까지 양국 교역은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2003년부터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2009년 세계 경기침체 이전까지 6년간 평균 35%의 교역증가율을 보였는데,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교역량 증가는 18%임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수치이다.

현대자동차의 인도 진출과 인도의 본격적인 개방정책이 맞물려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2003년 106.1%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평균 20% 이상의 급격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 증가세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풀 꺾여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전년대비 10.7% 감소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액은 2010년, 2011년 다시 증가세로 회복하였으나 2012년 세계경제 침체로 전년대비 5.8% 하락했으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인도 루피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 인도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2% 감소하였다.

2003년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100% 이상 급증한 반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입은 1.3%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수입은 평균 20% 상승했던 수출보다 20% 높은 평균 40%의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의 대인도 수입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표 3-5. 한·인도 교역, 수출, 수입 규모 및 증가율

(단위: 천 달러, %)

연도	교역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71	12,353	86.9	2,502	366.8	9,851	62.2
1980	226,588	33.2	172,951	99.0	53,637	-35.5
1990	717,996	-23.0	435,315	-35.5	282,681	9.8
1995	1,924,111	10.3	1,125,814	-2.9	798,297	36.6
2000	2,310,872	8.5	1,326,166	-2.7	984,706	28.2
2001	2,513,359	8.8	1,407,728	6.2	1,105,631	12.3
2002	2,633,044	4.8	1,384,137	-1.7	1,248,907	13.0
2003	4,085,697	55.2	2,852,952	106.1	1,232,745	-1.3
2004	5,481,960	34.2	3,631,978	27.3	1,849,982	50.1
2005	6,709,913	22.4	4,597,837	26.6	2,112,076	14.2
2006	9,173,586	36.7	5,532,797	20.3	3,640,789	72.4
2007	11,224,460	22.4	6,600,039	19.3	4,624,421	27.0
2008	15,558,304	38.6	8,977,063	36.0	6,581,241	42.3
2009	12,154,912	-21.9	8,013,290	-10.7	4,141,622	-37.1
2010	17,109,052	40.8	11,434,596	42.7	5,674,456	37.0
2011	20,547,651	20.1	12,654,078	10.7	7,893,573	39.1
2012	18,842,863	-8.3	11,922,037	-5.8	6,920,826	-12.3
2013	13,313,830	-6.9	8,620,911	-6.2	4,692,919	-8.1

주: 2013년은 1월에서 9월까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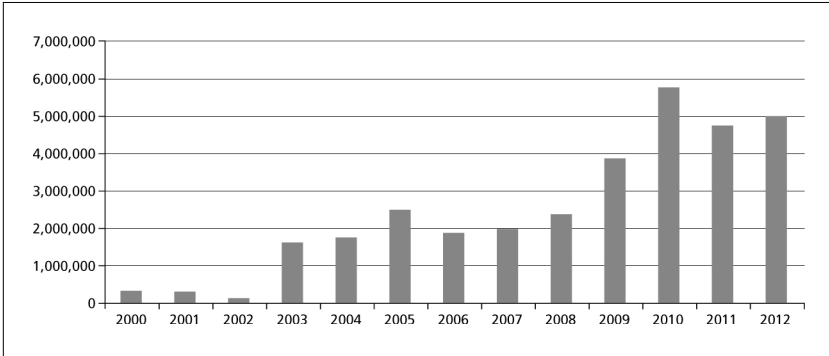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2013. 10. 16).

37% 감소했으며, 2010년과 2011년에 회복세를 보이다 2012년 다시 12% 감소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무역수지 흑자는 2003년 이후 급상승하여 2010년 5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경기 둔화로 2011년에는 48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는 다소 회복되어 약 5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흑자 추세는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증가에 기인한다.

그림 3-5. 2000~12년 한국의 대인도 무역흑자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표 3-5]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 품목별 한·인도 교역 추이

### 가. 한국의 대인도 수출

인도가 개혁개방을 시작한 1991년 한국의 수출품목은 플라스틱이 9,300만 달러(19.8%), 기타 수송장비 9,100만 달러(19.4%),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 4,000만 달러(9.2%) 순이었다. 한국과 교역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이전 시점인 2000년 섬유사 1억 3,900만 달러(10.5%), 도로 주행 차량 13억 5,000만 달러(10.2%), 석유, 석유 제품 및 관련물질 1억 3,400만 달러(1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의 경제성장이 가속화 되고 한국과 교역이 급격히 증가한 2005년 통신 및 녹음기기 1억 5,000만 달러(27.2%), 철강 1억 4,000만 달러(9.8%), 도로 주행 차량 4억 5,200만 달러(9.8%) 순이었으며, 2012년 철강 17억 2,000만 달러(14.4%), 도로 주행 차량 15억 1,100만 달러(12.7%) 플라스틱 9억 4,100만

표 3-6. 한국의 대인도 10대 수출품목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1991	2000	2005	2009	2012
	품목 금액(비중)	품목 금액(비중)	품목 금액(비중)	품목 금액(비중)	품목 금액(비중)
전체	469(100)	1,326(100)	4,598(100)	8,013(100)	11,922(100)
1	플라스틱 (원료형태의 것) 93(19.8)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139(10.5)	통신 및 녹음기기 1250(27.2)	철강 1,127(14.1)	철강 1,720(14.4)
2	기타 수송장비 91(19.4)	도로 주행 차량 135(10.2)	철강 476(10.4)	도로 주행 차량 1,028(12.8)	도로 주행 차량 1,511(12.7)
3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 43(9.2)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 134(10.1)	도로 주행 차량 452(9.8)	통신 및 녹음기기 933(11.6)	플라스틱(원료형태 의 것) 941(7.9)
4	철강 35(7.5)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120(9.0)	특수산업용 기계 248(5.4)	플라스틱 (원료형태의 것) 586(7.3)	유기화학물 905(7.6)
5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26(5.5)	철강 100(7.5)	플라스틱 (원료형태의 것) 244(5.3)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물질 457(5.7)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880(7.4)
6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22(4.7)	통신 및 녹음기기 92(6.9)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물질 225(4.9)	특수산업용 기계 397(5.0)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 777(6.5)
7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22(4.7)	유기화학물 86(6.5)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222(4.8)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378(4.7)	특수산업용 기계 639(5.4)
8	유기화학물 20(4.3)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79(6.0)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216(4.7)	유기화학물 370(4.6)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628(5.3)
9	비철금속 16(3.4)	특수산업용 기계 56(4.2)	기타 수송장비 202(4.4)	기타 수송장비 364(4.5)	통신 및 녹음기기 462(3.9)
10	달리 명시되지 않은 비금속광물 15(3.2)	플라스틱 (원료형태의 것) 55(4.1)	비철금속 148(3.2)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금속제품 357(4.5)	비철금속 452(3.8)

주: SITC 2단위<sup>36)</sup>.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2013. 1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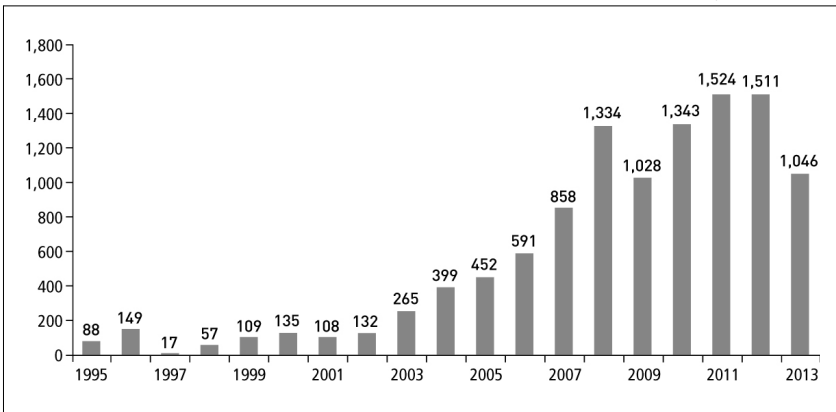
36)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는 무역통계 비교를 목적으로 한 상품 분류방식의 하나이다(출처: [http://www.kita.net/stat/guide/guide/pop\\_guide05\\_01.html](http://www.kita.net/stat/guide/guide/pop_guide05_01.html) 검색일: 2013. 11.1). 최근에는 HS(Harmonized System) 코드가 좀 더 광범위하게 쓰이나 본고에서는 다음 절의 분석과 연결성을 고려하여 SITC를 채택하였다.

달러(7.9%) 순으로 변화였다. 휴대전화를 포함한 통신 및 녹음기기의 수출액은 인도의 호황기였던 2005년 12억 5,000만 달러로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잇따른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감소하여 2012년 4억 6,000만 달러로 하락하였다.

1991년 수출액이 미미했던 도로 주행 차량은 1996년 현대자동차의 인도 진출로 자동차 부품의 수출 증가와 함께 증가하여 2000년 1억 3,500만 달러에서 2012년 15억 1,100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2년 우리나라 대인도 수출액의 12.7%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 되었다.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는 자동차 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 부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sup>37)</sup>

그림 3-6. 한국의 대인도 도로 주행 차량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2013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2013. 11. 1).

37) 자동차 부품업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완성차 업체가 기술을 내부화하기 위한 협력의 지속성이 요구됨(이인혁, 김영삼 2007, p. 2).

현재(2013년 1~9월 기준)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원자재가 50% 이상, 자본재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교역 구조이다. 대인도 수출에서 소비재의 비중은 핸드폰 수출이 크게 증가한 시기인 2004년부터 2006년 까지 약 20%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2년과 2013년(1~9월) 5% 미만이다. 인도의 생활수준은 2011/2012회계연도 1인당 GDP가 1,400달러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한국산 제품을 소비하지 않고 자국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생활필수품이나 전자기기 외의 다양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sup>38)</sup> 하지만 세계 인구규모 1위인 중국 시장의 인구수를 인도가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인도 소비재 시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이다.

표 3-7. 한국의 대인도 생산단계별 수출 구성

(단위: %)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직접	내구	비내구	기타
				소비재	소비재	소비재	
1988년	70,32	25,38	4,30	0,22	3,87	0,43	0,00
1991년	63,54	33,48	2,99	0,21	1,92	0,85	0,00
2000년	52,56	33,94	13,50	0,23	11,54	1,73	0,00
2005년	36,58	40,52	22,84	0,07	22,16	0,59	0,07
2009년	47,20	44,53	8,26	0,09	7,77	0,40	0,02
2012년	52,11	43,71	4,16	0,04	3,65	0,47	0,03
2013년	54,54	40,52	4,92	0,03	4,21	0,66	0,03

주: 1) 2013년은 1월부터 9월까지

2) 원자재는 “생산의 원료가 되는 자재”, 자본재는 “생산 기계나 원자재 따위의 생산 수단을 만들어내는 제품”, 소비재는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로 TV, 냉장고 등의 사람이 생산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완제품, 편익을 받는 기간에 따라 내구 비내구 소비재로 구분하고 기간이 없이 소멸되는 것은 직접 소비재로 구분”. 내구소비재(1년 이상, 가전제품, 안경 등), 비내구소비재(1년 이하, 의류, 화장품 등), 직접소비재(사용시 소멸되는 제품으로 식품류가 이에 해당됨).

(출처: [http://www.kita.net/stat/guide/guide/pop\\_guide05\\_01.html](http://www.kita.net/stat/guide/guide/pop_guide05_01.html) 검색일: 2013년 11월20일).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2013. 11. 1).

38) 코트라(2009), p. 3.

제2장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인도 CEPA는 일부 품목이 아닌 90%에 육박하는 품목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철강 품목은 한·인도 CEPA에서 5~12.5%에 해당하는 관세가 5년, 8년에 걸쳐 점차 철폐될 예정이며, 이는 경쟁이 치열한 철강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은 2005년 대인도 수출 비중이 10.4%에서 2009년 14.1%로 상승하였으며 CEPA 발효 후인 2012년 14.4%로 대인도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하였다.

2000년 이후 주요 품목이 된 자동차 부품은 베어링 및 브레이크등의 관세율을 8년 이내에 철폐하고, 기타 일부 자동차 부품의 12.5% 관세율을 8년 이내에 1~5%로 인하하는 양허를 CEPA 협정에서 채택하였다.<sup>39)</sup> 협정 결과 자동차 부품의 수출액은 미국발 글로벌 경기침체영향을 크게 받은 2009년을 제외하면 2008년 대비 2010년 1% 증가했으며 2011년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다. 2012년 인도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어 자동차 부품의 수출도 둔화되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자동차 부품의 수출은 인도경제의 경기가 회복됨과 동시에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나. 한국의 대인도 수입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입 품목은 나프타를 포함한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이 38억 3,000만 달러(55.3%)로 과반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철강(6.0%), 비철금속(5.7%), 유기화학물(5.4%), 동물사료(3.6%), 섬

---

39) 외교부(2009), pp. 442-503.

유사등(3.5%), 금속성 광석 및 금속 부스러기(3.0%), 곡식 및 곡식가공품(2.9%) 등으로 상위 여덟 개 품목이 원자재 위주의 일부 품목에 집중되었다.

인도가 1991년 개혁개방 정책을 펼친 이래로, 우리나라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상위 품목 구성은 원자재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1991년 한국의 대인도 수입 1위 품목(비중 23.9%)이었던 금속성 광석 및 금속 부스러기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12년 전체 수입액의 5% 미만을 차지하였다. 또한 다른 대부분의 주요 품목의 수입액이 증가한 반면 2000년 2억 6,800만 달러(27.2%)로 대인도 수입 품목 1위였던 섬유사는 2000년 이후 그 수입액이 감소하여 2012년 2억 3,900만 달러로(3.5%)로 나타났다.

인도 개혁개방 직전인 1991년 수입액이 1억 1,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2.7%를 차지하던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 38억 3,000만 달러로 한국의 대인도 전체 수입액의 55.3%를 차지하였다.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은 나프타를 포함하는데 나프타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54.59%로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 수입액을 나프타의 수입액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인도에서 나프타를 수입하고, 이를 활용한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분업구조가 미약한 한·인도 교역 구조에서 이 부분의 분업구조가 상대적으로 잘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sup>40)</sup> 나프타 수입의 증가는 나프타를 주원료로 하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성장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2000년대 중반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기로 증가세이던 나프타 수입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 침체기였던 2009년 급격히 감소하여 수입액은 2013년 10월 말 기준 22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 감소하였다.

---

40) 조충제 외(2010), p. 141.

표 3-8. 한국의 대인도 10대 수입품목변화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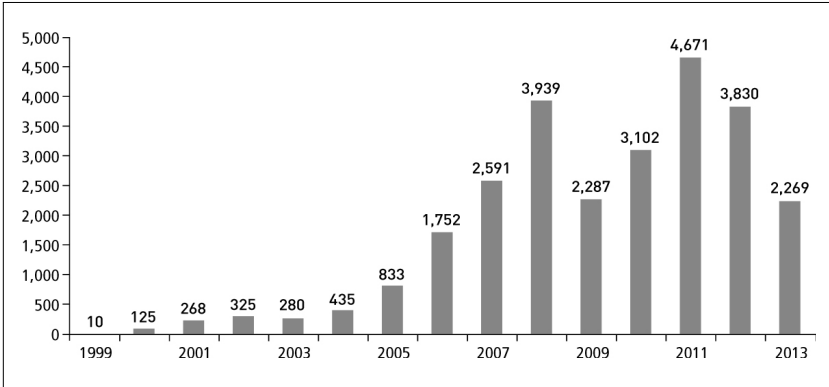
순위	1991	2000	2005	2009	2012
	품목 금액(비중)	품목 금액(비중)	품목 금액(비중)	품목 금액(비중)	품목 금액(비중)
전체	485(100)	985(100)	2112(100)	4142(100)	6921(100)
1	금속성 광석 및 금속 부스러기 116(23.9)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268(27.2)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 833(39.4)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물질 2287(55.2)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물질 3830(55.3)
2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 110(22.7)	섬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 125(12.7)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245(11.6)	금속성 광석 및 금속 부스러기 281(6.8)	철강 415(6.0)
3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69(14.2)	유기화학물 101(10.3)	철강 224(10.6)	유기화학물 226(5.5)	비철금속 392(5.7)
4	동물사료 36(7.4)	동물사료 100(10.2)	유기화학물 97(4.6)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220(5.3)	유기화학물 376(5.4)
5	섬유 및 그 웨이스트 36(7.4)	금속성 광석 및 금속 부스러기 79(8.0)	동물사료 96(4.5)	동물사료 186(4.5)	동물사료 246(3.6)
6	유기화학물 28(5.8)	철강 48(4.9)	금속성 광석 및 금속 부스러기 95(4.5)	철강 184(4.4)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239(3.5)
7	비철금속 14(2.9)	비철금속 37(3.8)	금(금광 및 그 정광 제외) 66(3.1)	비철금속 83(2.0)	금속성 광석 및 금속 부스러기 209(3.0)
8	철강 13(2.7)	원동기기 및 설비 28(2.8)	비철금속 51(2.4)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61(1.5)	곡식 및 곡식가공품 199(2.9)
9	미가공 비료 및 미가공 광물 10(2.1)	의약품 및 약제제품 22(2.2)	원동기기 및 설비 46(2.2)	의약품 및 약제제품 54(1.3)	의약품 및 약제제품 89(1.3)
10	가족제품 및 손질모피 9(1.9)	염료, 유연제 및 착색제 21(2.1)	의약품 및 약제제품 38(1.8)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49(1.2)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76(1.1)

주: SITC 2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2013. 11. 1).

그림 3-7. 한국의 대인도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2013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2013. 11. 1).

표 3-9. 한국의 대인도 생산단계별 수입 구성

(단위: %)

연도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직접 소비재		
				직접 소비재	내구 소비재	비내구 소비재
1988	89.41	5.88	4.71	3.53	0.59	0.59
1991	85.57	1.65	12.78	10.52	0.41	1.86
2000	78.07	7.61	14.21	12.18	0.91	1.12
2005	85.42	6.49	8.10	6.44	0.47	1.14
2009	86.31	5.09	8.59	7.12	0.36	1.11
2012	88.66	3.84	7.50	5.92	0.35	1.23
2013	84.98	4.35	10.68	8.61	0.36	1.70

주: 2013년은 1월부터 9월까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2013. 11. 1).

2000년대 이후 제조업의 원동기기 및 설비,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등의 품목이 상위 10대 대인도 수입 품목이 되었다. 또한 의약품 및 약제약품은 큰 비중은 아니지만 2000년 2,000만 달러에서 2012년 9,000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그 수입액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인도 제조업의 열악한

경쟁력으로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 비중은 자본재 4.35%, 소비재 10.68%로 여전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인도 수입은 2010년 한·인도 CEPA의 영향을 받았다. 인도 수입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나프타는 한·인도 CEPA 이전에 관세율은 1%였으나 2010년 한·인도 CEPA 협정과 동시에 나프타 관세의 양허 유형은 E-041)로 2010년 CEPA 발효 이후 즉시 관세가 철폐되었다. 이러한 관세 철폐의 영향으로 한국의 대인도 나프타 수입은 2010년, 2011년 각각 34%, 51% 증가하였다. 한·인도 CEPA 이후 2011년 나프타의 수입액은 2009년 경제위기로 41% 감소한 나프타의 수입액 하락 폭을 회복한 것이며 2008년 38억 8,900만 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것이다(46억 2,600만 달러). 이는 인도가 한국과 FTA 체결로 얻은 직접적인 수혜이며, 한국은 비용측면에서 인도는 대한국 적자해소에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3. 한·인도 교역구조 변화 및 특징

#### 가. 경쟁관계

##### 1) 무역특화지수

한국과 인도의 교역 경쟁관계는 특정 시장에서 양국의 경쟁력을 분석, 비교할 수 있는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sup>42)</sup> 무역특화지수는 기준국가가 상대국가에 대해 수출에 상

---

41) 외교부(2009), 부속서2-가, p. 70.

대적 비교우위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며, 이러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기준국가의 경쟁력 있는 품목의 수출이 수입보다 크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무역특화지수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가 높다는 의미이다. 무역특화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식 3-1]과 같다.

$$TSI_{ij} = \frac{E_{ij} - I_{ij}}{E_{ij} + I_{ij}} \quad \text{식 (3-1)}$$

$TSI_{ij}$ :  $i$ 국가  $j$ 품목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E_{ij}$ :  $i$ 국가  $j$ 품목에 대한 수출액

$I_{ij}$ :  $i$ 국가  $j$ 품목에 대한 수입액

양국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1980~2012년 기간 한국의 대인도 수출특화지수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다. 1980년 0.53이었던 무역특화지수는 이후 감소하여 2000년 0.15를 기록하였으나 2005년 0.38로 다시 높아졌다. 하지만 이후 무역특화지수는 감소하여 2012년 0.27까지 하락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한국과 인도 양국 교역이 수출 또는 수입에 특화되지 않고 기간별로 변동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산업내 무역구조를

42) 인도의 대한국 TSI는 한국의 대인도 TSI에 -1을 곱한 값과 같다. 이는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인도의 대한국 수입과 같고, 한국의 대인도 수입은 인도의 대한국 수출과 같기 때문이다.(조충제 외 2010, p. 158 인용)

$$TSI_{KI} = \frac{KIX - KIM}{KIX + KIM} = \frac{IKM - IKX}{IKM + IKX} = \frac{-(IKX - IKM)}{IKX + IKM} = -TSI_{IK}$$

$TSI_{KI}$ : 한국의 대인도 TSI,  $TSI_{IK}$ : 인도의 대한국 TSI

$KIX$ (한국의 대인도 수출) =  $IKM$ (인도의 대한국 수입)

$KIM$ (한국의 대인도 수입) =  $IKX$ (인도의 대한국 수출)

유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무역특화지수를 분야별로 살펴봤을 때 한국과 인도의 수출특화 분야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국은 인도에 대해 1980년부터 현재까지 플라스틱, 금속제조품, 기계류, 전기기기, 수송 장비 등의 분야에 꾸준히 수출

표 3-10. 한국의 대인도 산업별 무역특화지수(TSI)

품목명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2012
전체	0.53	0.21	0.17	0.15	0.38	0.32	0.27
육류					1.00	0.99	0.99
유제품 및 계란				-0.92	-1.00	-0.76	-0.76
수산물	1	-0.62	-1.00	-0.93	-1.00	-1.00	-1.00
곡물		-1.00	1.00	0.92	0.11	-1.00	-1.00
과일	-1	-0.67	-1.00	-0.93	-0.97	-1.00	-1.00
설탕	1	-0.86	0.77	-0.83	-0.27	0.19	0.19
커피	-1	-1.00	-1.00	-0.99	-0.99	-0.59	-0.59
비제분 곡물을 제외한 사료		-1.00	-1.00	-0.98	-0.98	-0.99	-0.99
기타 식품		-0.01	-0.66	-0.82	-0.75	-0.61	-0.61
음료	1	1.00		1.00	0.81	0.45	0.45
담배			1.00	1.00	-1.00	-1.00	-1.00
가죽, 모피		1.00				0.00	
유지종자, 유지견과	-1	-1.00		-1.00	-0.87	-1.00	-1.00
생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0.90	0.96	0.96	0.86	0.99	0.99
목재	-1	-1.00	-1.00	-1.00	-0.98	-0.87	-0.87
펄프, 제지		-1.00		-1.00	1.00	-0.90	-0.90
방직섬유 (비제조, 폐기)	-0.1	-0.18	0.97	0.74	0.38	0.17	0.17
미가공 비료, 광물	-1	-1.00	-0.59	-0.60	-0.67	-0.44	-0.44
금속광석, 금속스크랩	-1	-1.00	-0.99	-0.89	-0.54	-0.61	-0.61
미가공 동식물자원	-1	-0.47	-0.40	-0.09	-0.70	-0.74	-0.74
석탄, 코크스, 연탄					-1.00	-1.00	-1.00
석유, 석유제품	1	-0.11	-0.97	0.04	-0.57	-0.67	-0.67
천연 및 제조가스	-1	-1.00	1.00		1.00	1.00	1.00
동물성 유지		-1.00	1.00	0.22	-1.00	-1.00	-1.00
식물성 고정유지		-1.00	-1.00	-1.00	-1.00	-1.00	-1.00
가공동식물성 유지		-1.00	-0.96	-1.00	-0.93	-0.94	-0.94

표 3-10. 계속

품목명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2012
화학원소, 화합물	0.53	-0.28	0.32	-0.06	0.14	0.42	0.42
석탄, 석유, 가스의 미가공화학물질		1.00	1.00		1.00	-0.37	-0.37
염색, 태닝, 착색 원료	-0.99	-0.51	-0.44	-0.63	-0.33	-0.10	-0.10
의약품, 제약품	-1	0.95	0.23	-0.39	-0.54	-0.16	-0.16
향물질, 세정재료	1	-0.99	-0.81	-0.88	-0.53	-0.31	-0.31
제조된 비료	1		1.00	1.00	0.87	0.93	0.93
플라스틱 등	1	0.98	0.96	0.92	0.93	0.92	0.92
화학재료, 화학제품	0.90	0.61	0.70	0.28	0.46	0.44	0.44
가죽, 모피		-0.62	-0.45	-0.72	-0.90	0.00	-0.73
고무제품	1	0.96	0.79	0.84	0.87	0.48	0.48
가구를 제외한 목재제품	0.94	0.14	-0.61	-0.65	0.40	0.90	0.90
제지, 판지	1	0.99	0.33	0.95	0.99	0.97	0.97
직물용 실, 직물, 기성품	0.65	0.40	-0.25	-0.32	-0.33	-0.27	-0.27
비금속광물제조품	0.99	0.60	-0.38	-0.38	-0.13	-0.48	-0.48
철강	0.99	0.80	-0.02	0.35	0.36	0.62	0.62
비철금속	1	0.14	0.39	0.08	0.49	0.08	0.08
금속제조품	0.24	0.98	0.88	0.67	0.87	0.86	0.86
전기제외 기계류	0.47	0.82	0.88	0.71	0.78	0.86	0.86
전기기기 및 기계류	0.98	0.86	0.79	0.81	0.96	0.89	0.89
수송장비	1	0.98	0.99	0.82	0.94	0.97	0.97
위생, 배관, 난방, 조명기구		-1.00	1.00	0.56	0.80	0.81	0.81
가구	-1	0.20	0.33	0.98	0.32	0.84	0.84
여행용품, 핸드백 및 유사물품	1	-0.72	-0.95	-0.69	-0.88	0.12	0.12
의류	0.97	-0.41	-0.83	-0.21	-0.73	-0.94	-0.94
신발	1	-0.15	-0.89	-0.80	-0.80	-0.98	-0.98
과학 및 제어장치, 사진 관련 용품, 시계	0.9	0.91	0.93	0.66	0.69	0.84	0.84
동물원 동물, 개, 고양이 포함 동물				-1.00		-0.62	-0.62
총기, 탄약					-1.00	0.72	0.72

주: 한국의 대인도 TSI와 인도의 대한민국 TSI는 반비례 관계임. 지수가 없는 품목은 제외하였음.  
 자료: UN Comtrade DB(2013, 11.1)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SITC 2단위로 계산함).

특화를 보여왔으며 무역특화지수 역시 1에 상당히 가까워 높은 수준의 비교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도는 농산물, 과일, 목재, 금속 광석, 석유제품 등에 높은 수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양국의 수출특화품목지수의 크기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은 금속, 기계류, 전기기기, 수송 장비 등을 중심으로 수출특화지수가 2000년대 초중반 다소 낮아지다가 2000년대 후반 다시 증가하였으며, 인도도 마찬가지로 수출특화가 있는 품목의 지수변화 정도는 크지 않지만 커피, 기타식품, 목재, 금속광석, 석유제품 등에 대한 수출특화 정도는 1980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국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출특화였던 품목의 지수가 낮아지면서 비교우위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인도는 설탕, 비료, 광물, 제약품(의료품) 등이 2000년을 전후로 수출 비교우위가 없어졌으며 한국은 방직섬유, 화학제품, 식물 관련 제품, 비금속광물제조품 등에서 수출 비교우위가 점점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플라스틱, 금속제조품, 기계류, 전기기기, 수송장비 등에 수출특화가 있고 농산물, 과일, 목재, 금속광석, 석유제품 등에서는 수입특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 수입 특화 모두 나타나지 않은, 즉 양국간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방직섬유, 비철금속, 비금속광물제조품, 식물 관련 제조품, 고무제품, 의료품, 제약품, 석탄 및 석유 등의 미가공 화학물질 등으로 나타났다.

표 3-11. 한국의 대인도 무역특화지수 분포

구분	품목
수출특화	플라스틱, 금속제조품, 기계류, 전기기기, 수송 장비 등
수입특화	농산물, 과일, 목재, 금속광석, 석유제품 등
산업내무역	방직섬유, 비철금속, 비금속광물제조품, 식물 관련 제조품, 고무제품, 의료품, 제약품, 석탄 및 석유 등의 미가공 화학물질 등

주: 한국의 대인도 수출특화업종은 TSI>0.5, 수입특화 업종은 TSI<-0.5, 산업내무역 업종은 -0.5<TSI<0.5인 업종으로 구분함.

자료: 조충제 외(2010), [표 3-10]을 이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2) 현시비교우위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여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는 현시 비교우위지수를 통해 한국과 인도의 경쟁력을 비교하였다.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는 세계수출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수출시장에서 특정 국가(한국, 인도)의 품목별, 전체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교역 규모가 상이한 국가 간에도 수출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수출국가의  $j$ 품목이 다른 수출품목보다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 간에도 품목들의 지수를 비교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두 국가 간의 수출경쟁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RCA_{ij} = \frac{X_{ij}/X_{wj}}{X_i/X_w} \quad \text{식 (3-2)}$$

$RCA_{ij}$ :  $i$ 국가  $j$ 품목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

$X_{ij}$ :  $i$ 국가  $j$ 품목에 대한 수출액

$X_{wj}$ : 전 세계  $j$ 품목에 대한 수출액

$X_i$ :  $i$ 국가 총수출액

$X_w$ : 전 세계 총수출액

분석결과 한국과 인도는 2012년 기준 고무제품, 가죽, 전기기기 및 기계류 등의 부문에서 RCA가 1 이상으로 나타나 세계수출시장에서 다른 품목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이 인도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위인 분야(한국 RCA 1 이상, 인도 1 미만)는 방직섬유, 석탄석

유 등의 미가공 화학물질, 화학원소, 화합물, 식물관련제품, 고무제품, 철강 등으로 나타났으며, 인도는 한국에 비해 비료, 광물, 목재, 수산물, 곡물, 동식물성 유지, 화학제품, 의약품, 제약품, 비철금속 등에서 절대적 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한국과 인도의 세계시장 수출 경쟁력 비교(2012년 기준)

구분	품목
한국 우위	방직섬유, 석탄 및 석유의 미가공 화학물질, 화학원소, 화합물, 식물 관련 제품, 고무제품, 철강 등
인도 우위	비료, 광물, 목재, 수산물, 곡물, 동식물성 유지, 화학제품, 의약품, 제약품, 비철금속 등
한국, 인도 우위 (수출경쟁 품목)	고무제품, 가죽, 전기기기, 기계류 등

주: RCA가 1 이상인 품목을 수출 우위 품목으로 구분함.  
자료: [표 3-13]을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표 3-13. 최근 한국과 인도의 현시비교우위지수 비교

품목	한국 RCA			인도 RCA		
	2005	2009	2012	2005	2009	2012
동물(살아있는)	0.01	0.00	0.00	0.04	0.07	0.02
담배	0.39	0.01	0.50	0.80	0.78	1.30
음료	0.16	0.01	0.23	0.51	0.19	0.18
육류	0.02	0.51	0.01	2.30	1.25	1.67
미가공 동식물자원	0.38	0.07	0.40	2.65	1.70	2.91
방직섬유 (비제조, 폐기)	1.47	0.09	1.15	1.38	0.90	0.78
미가공 비료, 광물	0.17	0.25	0.26	0.41	0.23	2.48
생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1.47	0.09	1.87	2.38	1.68	2.04
목재	0.01	0.07	0.01	2.71	2.18	1.93
금속광석, 금속스크랩	0.14	0.41	0.08	0.26	0.20	0.23
가죽, 모피	0.04	0.16	0.01	0.07	0.10	0.13
유지종자, 유지견과	0.00	0.47	0.00	1.20	1.80	1.37
유제품 및 계란	0.01	0.05	0.01	3.21	0.19	2.70
펄프, 제지	0.01	0.00	0.06	0.12	0.19	0.01
수산물	0.51	2.05	0.52	1.37	0.78	1.07

표 3-13. 계속

품목	한국 RCA			인도 RCA		
	2005	2009	2012	2005	2009	2012
석유, 석유제품	0.55	0.01	0.98	0.54	0.23	0.18
천연 및 제조가스	0.02	0.09	0.03	0.03	0.04	0.05
석탄, 코크스, 연탄	0.00	1.38	0.00	0.01	0.00	0.00
곡물	0.09	0.15	0.08	1.96	4.06	5.65
가공동식물성 유지	0.07	0.16	0.06	3.56	3.21	2.94
동물성 유지	0.06	0.29	0.03	4.26	2.28	0.60
식물성 고정유지	0.01	0.00	0.02	2.31	0.81	1.11
석탄, 석유, 가스의 미가공화학물질	0.96	0.62	1.39	0.15	0.11	0.10
제조된 비료	0.30	0.02	0.24	1.03	1.29	1.74
플라스틱 등	1.90	0.04	2.02	0.04	0.03	0.04
화학원소, 화합물	1.28	0.01	1.56	0.91	0.13	0.39
염색, 태닝, 착색 원료	0.69	0.06	0.83	0.90	0.63	0.55
과일	0.12	1.40	0.08	1.02	0.91	0.68
화학재료, 화학제품	0.51	2.17	0.60	1.58	1.35	1.49
의약품, 제약품	0.07	0.70	0.09	1.68	2.67	2.21
향물질, 세정재료	0.22	0.09	0.33	1.68	1.47	1.63
폭발성 제품, 불꽃제조제품	0.25	0.24	0.36	1.02	0.92	1.28
직물용 실, 직물, 기성품	1.75	0.31	1.31	0.57	0.64	0.85
고무제품	1.33	0.55	1.15	0.05	0.23	0.08
철강	1.64	2.03	1.99	0.33	0.58	0.42
가죽, 모피	1.40	0.53	1.21	0.74	0.48	1.51
금속제조품	0.81	1.22	0.99	1.09	0.84	0.82
설탕	0.31	1.14	0.27	1.14	0.79	0.97
비금속광물제조품	0.25	0.07	0.23	0.16	0.18	0.21
제지, 판지	0.55	0.48	0.54	0.30	0.23	0.29
비철금속	0.77	1.43	0.90	3.93	2.87	3.13
가구를 제외한 목재제조품	0.06	0.20	0.10	6.97	6.19	5.00
전기기기 및 기계류	2.10	1.85	1.68	1.85	1.49	1.51
수송장비	1.77	0.86	2.03	0.86	1.16	0.71
전기제외 기계류	0.95	1.05	0.87	1.34	0.80	0.90
커피	0.09	0.85	0.10	0.31	0.33	0.34

표 3-13. 계속

품목	한국 RCA			인도 RCA		
	2005	2009	2012	2005	2009	2012
신발	0,07	1,86	0,05	0,20	0,41	0,28
여행용품, 핸드백 및 유사물품	0,14	2,38	0,21	0,34	0,63	0,61
의류	0,32	0,18	0,15	0,24	0,25	0,23
기타 제조품	0,58	0,18	0,36	0,28	0,25	0,31
위생, 배관, 난방, 조명기구	0,15	0,06	0,56	2,27	1,37	1,13
과학 및 제어장치 등	1,37	0,14	2,17	3,10	2,55	2,08
가구	0,17	0,04	0,21	1,38	1,13	1,03
비제분 곡물을 제외한 사료	0,06	2,73	0,05	0,17	0,20	0,20
동물원 동물, 개, 고양이 포함 동물	0,05	0,42	0,06	1,20	2,04	1,92
기타 식품	0,50	0,05	0,52	0,00	0,04	0,01
총기, 탄약	0,54	0,68	1,04	0,01	0,04	0,21
금동전을 제외한 동전 등	0,15	0,04	0,05	0,00	0,00	0,39

자료: UN Comtrade DB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SITC 2단위로 계산함)(2012. 11. 1).

198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고무, 철강, 가죽, 직물 관련 제품, 전기기기 및 기계류, 수송 장비 등은 비교적 꾸준히 경쟁력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플라스틱, 화학 원소 및 화학제품 등이 2000년 초중반부터 경쟁우위를 나타내기 시작한 반면 의류, 신발 등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쟁우위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3-14. 한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 추이

품목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2012
동물(살아있는)	0,01	0,00	0,00	0,00	0,01	0,00	0,00
담배	0,16	0,23	0,08	0,09	0,39	0,01	0,50
음료	0,03	0,10	0,12	0,17	0,16	0,01	0,23
육류	5,58	0,08	0,09	0,07	0,02	0,51	0,01
미가공 동식물자원	0,02	1,20	0,73	0,53	0,38	0,07	0,40

표 3-14. 계속

품목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2012
방직섬유 (비제조, 폐기)	0.71	0.80	1.57	1.76	1.47	0.09	1.15
미가공 비료, 광물	1.42	0.44	0.33	0.31	0.17	0.25	0.26
생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0.02	0.43	0.51	1.35	1.47	0.09	1.87
목재	0.08	0.11	0.02	0.01	0.01	0.07	0.01
금속광석, 금속스크랩	0.69	0.10	0.05	0.07	0.14	0.41	0.08
가죽, 모피	0.36	0.07	0.15	0.06	0.04	0.16	0.01
유지종자, 유지견과	1.25	0.00	0.00	0.00	0.00	0.47	0.00
유제품 및 계란	0.01	0.00	0.00	0.01	0.01	0.05	0.01
펄프, 제지	0.01	0.00	0.02	0.00	0.01	0.00	0.06
수산물	0.01	2.12	1.36	1.01	0.51	2.05	0.52
석유, 석유제품	0.47	0.15	0.43	0.65	0.55	0.01	0.98
천연 및 제조가스	0.00	0.03	0.08	0.09	0.02	0.09	0.03
석탄, 코크스, 연탄	0.41	0.00	0.00	0.00	0.00	1.38	0.00
곡물	0.57	0.06	0.10	0.10	0.09	0.15	0.08
가공동식물성 유지	0.16	0.02	0.06	0.13	0.07	0.16	0.06
동물성 유지	1.42	0.01	0.04	0.06	0.06	0.29	0.03
식물성 고정유지	0.00	0.00	0.03	0.01	0.01	0.00	0.02
석탄, 석유, 가스의 미가공화학물질	0.01	0.96	1.06	0.75	0.96	0.62	1.39
제조된 비료	0.02	0.80	0.69	0.38	0.30	0.02	0.24
플라스틱 등	0.00	0.74	1.53	1.80	1.90	0.04	2.02
화학원소, 화합물	0.11	0.43	0.80	1.13	1.28	0.01	1.56
염색, 태닝, 착색 원료	0.31	0.39	0.55	0.65	0.69	0.06	0.83
과일	0.42	0.28	0.19	0.18	0.12	1.40	0.08
화학재료, 화학제품	0.44	0.17	0.29	0.44	0.51	2.17	0.60
의약품, 제약품	0.26	0.15	0.14	0.12	0.07	0.70	0.09
향물질, 세정재료	0.14	0.15	0.15	0.21	0.22	0.09	0.33
폭발성 제품, 불꽃제조제품	0.13	0.14	0.08	0.25	0.25	0.24	0.36
직물용 실, 직물, 기성품	3.95	2.76	3.03	2.81	1.75	0.31	1.31
고무제품	0.43	1.98	1.51	1.36	1.33	0.55	1.15
철강	0.50	1.78	1.51	1.75	1.64	2.03	1.99
가죽, 모피	0.09	1.58	3.10	2.63	1.40	0.53	1.21
금속제조품	0.77	1.34	1.37	0.92	0.81	1.22	0.99

표 3-14. 계속

품목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2012
설탕	4.22	0.67	0.52	0.44	0.31	1.14	0.27
비금속광물제조품	4.69	0.46	0.26	0.28	0.25	0.07	0.23
제지, 판지	0.54	0.35	0.47	0.69	0.55	0.48	0.54
비철금속	4.45	0.28	0.45	0.62	0.77	1.43	0.90
가구를 제외한 목재제조품	1.07	0.24	0.19	0.11	0.06	0.20	0.10
전기기기 및 기계류	2.36	2.04	2.21	1.70	2.10	1.85	1.68
수송장비	0.23	0.77	1.16	1.28	1.77	0.86	2.03
전기제외 기계류	2.06	0.52	0.65	1.15	0.95	1.05	0.87
커피	0.20	0.06	0.07	0.07	0.09	0.85	0.10
신발	1.78	7.11	1.20	0.39	0.07	1.86	0.05
여행용품, 핸드백 및 유사물품	0.67	6.42	1.81	0.75	0.14	2.38	0.21
의류	0.20	3.67	1.28	0.98	0.32	0.18	0.15
기타 제조품	0.33	1.72	1.12	0.92	0.58	0.18	0.36
위생, 배관, 난방, 조명기구	12.67	0.49	0.30	0.17	0.15	0.06	0.56
과학 및 제어장치 등	8.78	0.44	0.45	0.37	1.37	0.14	2.17
가구	8.76	0.38	0.18	0.14	0.17	0.04	0.21
비제분 곡물을 제외한 사료	0.88	0.05	0.06	0.06	0.06	2.73	0.05
동물원 동물, 개, 고양이 포함 동물	1.80	4.24	1.13	0.12	0.05	0.42	0.06
기타 식품	13.64	0.44	0.41	0.45	0.50	0.05	0.52
총기, 탄약	0.96	0.14	0.25	0.20	0.54	0.68	1.04
금동전을 제외한 동전 등	2.77	0.00	0.00	0.00	0.15	0.04	0.05

자료: UN Comtrade DB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SITC 2단위로 계산함)(2012. 11. 1).

인도는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육류, 미가공 동식물자원, 고무제품, 목재, 수산물, 곡물, 동식물성 유지, 비철금속, 목재제조품 등에서 비교적 꾸준히 경쟁력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료, 의약품, 제약품 등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쟁우위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직물 관련 제품, 기계류, 과일 등에서는 점차 경쟁우위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3-15. 인도의 현시비교우위지수 추이

품목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2012
동물(살아있는)	0.50	0.00	0.04	0.02	0.04	0.07	0.02
담배	0.79	0.40	0.60	0.90	0.80	0.78	1.30
음료	0.07	0.02	0.07	0.18	0.51	0.19	0.18
육류	4.63	2.96	3.39	4.08	2.30	1.25	1.67
미가공 동식물자원	1.11	1.15	4.27	1.97	2.65	1.70	2.91
방직섬유(비제조, 폐기)	2.52	1.48	1.52	2.00	1.38	0.90	0.78
미가공 비료, 광물	0.69	0.34	1.37	0.86	0.41	0.23	2.48
생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10.89	8.26	4.89	4.70	2.38	1.68	2.04
목재	3.72	3.93	5.28	3.52	2.71	2.18	1.93
금속광석, 금속스크랩	0.64	0.22	0.20	0.37	0.26	0.20	0.23
가죽, 모피	0.02	0.05	0.06	0.07	0.07	0.10	0.13
유지종자, 유지견과	5.64	1.52	0.87	1.23	1.20	1.80	1.37
유제품 및 계란	0.04	10.24	4.75	4.52	3.21	0.19	2.70
펄프, 제지	0.04	0.01	0.00	0.00	0.12	0.19	0.01
수산물	0.74	1.47	1.97	2.29	1.37	0.78	1.07
석유, 석유제품	0.01	0.03	0.11	0.11	0.54	0.23	0.18
천연 및 제조가스	0.16	0.00	0.00	0.01	0.03	0.04	0.05
석탄, 코크스, 연탄	0.01	0.00	0.00	0.01	0.01	0.00	0.00
곡물	2.49	4.14	0.51	0.81	1.96	4.06	5.65
가공동식물성 유지	2.11	2.68	3.13	3.79	3.56	3.21	2.94
동물성 유지	4.26	3.85	2.32	1.53	4.26	2.28	0.60
식물성 고정유지	6.87	2.75	2.56	3.41	2.31	0.81	1.11
석탄, 석유, 가스의 미가공화학물질	0.07	0.05	0.22	0.26	0.15	0.11	0.10
제조원비료	0.02	0.45	0.32	0.40	1.03	1.29	1.74
플라스틱 등		0.00	0.18	0.01	0.04	0.03	0.04
화학원소, 화합물	0.04	0.04	0.00	0.24	0.91	0.13	0.39
염색, 태닝, 착색 원료	0.76	0.74	1.70	2.05	0.90	0.63	0.55
과일	1.37	0.55	1.36	1.62	1.02	0.91	0.68
화학재료, 화학제품	0.19	0.72	0.97	1.38	1.58	1.35	1.49
의약품, 제약품		0.04	0.11	0.35	1.68	2.67	2.21
향물질, 세정재료	1.85	2.03	1.82	2.20	1.68	1.47	1.63

표 3-15. 계속

품목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2012
폭발성 제품, 불꽃제조제품	1.76	2.15	1.54	1.59	1.02	0.92	1.28
직물용 실, 직물, 기성품	2.58	2.01	0.72	0.78	0.57	0.64	0.85
고무제품	0.06	0.00	0.30	0.07	0.05	0.23	0.08
철강	0.20	0.19	0.33	0.64	0.33	0.58	0.42
가죽, 모피	0.03	0.13	0.32	0.48	0.74	0.48	1.51
금속제조품	0.11	0.40	0.63	1.09	1.09	0.84	0.82
설탕	0.61	0.96	1.11	1.02	1.14	0.79	0.97
비금속광물제조품	0.51	0.11	0.17	0.12	0.16	0.18	0.21
제지, 판지	0.06	0.04	0.17	0.24	0.30	0.23	0.29
비철금속	5.39	3.58	4.23	5.11	3.93	2.87	3.13
가구를 제외한 목재제조품	3.60	7.03	7.64	9.13	6.97	6.19	5.00
전기기기 및 기계류	0.29	0.49	1.07	1.51	1.85	1.49	1.51
수송장비	0.09	0.25	0.26	0.47	0.86	1.16	0.71
전기제외 기계류	1.38	0.90	0.84	1.28	1.34	0.80	0.90
커피	0.31	0.24	0.19	0.20	0.31	0.33	0.34
신발	0.29	0.17	0.15	0.14	0.20	0.41	0.28
여행용품, 핸드백 및 유사물품	0.32	0.17	0.25	0.20	0.34	0.63	0.61
의류	0.44	0.23	0.22	0.24	0.24	0.25	0.23
기타 제조품	0.13	0.02	0.04	0.11	0.28	0.25	0.31
위생, 배관, 난방, 조영기구	1.90	2.84	3.17	3.00	2.27	1.37	1.13
과학 및 제어장치 등	4.42	4.20	3.92	4.40	3.10	2.55	2.08
가구		1.15	1.28	1.39	1.38	1.13	1.03
비제분 곡물을 제외한 사료	0.31	0.15	0.11	0.18	0.17	0.20	0.20
동물원 동물, 개, 고양이 포함 동물	1.05	0.37	0.74	0.91	1.20	2.04	1.92
기타 식품	0.20	0.07	0.01	0.03	0.00	0.04	0.01
총기, 탄약	0.01	0.01	0.01	0.04	0.01	0.32	0.21
금동전을 제외한 동전 등	0.00	0.00	0.00	0.00	0.01	7.01	0.39

자료: UN Comtrade DB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SITC 2단위로 계산함)(2012. 11. 1).

### 3) 시장비교우위

시장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지수는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수출 비교우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세계 수출시장이 아닌 교역 대상국을 대상으로 수입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비교 분석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시장비교우위는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며 1보다 클수록 해당 분야가 대상국의 다른 분야보다 비교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MCA_{ij}^k = \frac{X_{ij}^{k_{ij}} / X_{ij}}{M_{jw}^k / M_{jw}} \quad \text{식 (3-3)}$$

$X_{ijk}$ :  $i$ 국가  $k$ 산업의  $j$ 국가에 대한 수출액

$X_{ij}$ :  $i$ 국가의  $j$ 국가에 대한 총수출액

$M_{jwk}$ :  $j$ 국가  $k$ 산업에 대한 대세계 수입액

$M_{jw}$ :  $j$ 국가의 총수입액

먼저 2012년 기준 한국은 인도의 수입시장에서 고무제품, 식물 관련 제품, 화학원소, 화합물, 석탄 및 석유 등의 미가공 화학물질, 플라스틱, 철강, 금속제조품, 비철금속, 전기기기, 기계류, 수송장비 등에서 지수가 1 이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산물, 석유화학 제품, 의약품, 제약품, 신발, 의류 등에서는 지수가 1 미만으로 나타나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는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곡물, 방직섬유, 동식물성 유지, 의약품, 제약품, 석유제품, 가죽, 고무제품, 식물 관련 제품, 비철금속, 철강, 비금속광물제조품 등에서 지수가 1 이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 전기기기, 수송 장비 등에서는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비교우위지수를 비교해본 결과 한국과 인도는 상대국의 수입시장에서 공통적으로 화학원소, 화합물, 식물 관련 제품, 철강, 비철금속 제품에 대해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한국과 인도의 상대국 수입시장 수출우위 품목 비교(2012년 기준)

구분	품목
인도수입시장 한국 수출우위 품목	고무제품, 화학원소, 화합물, 석탄 및 석유 등의 미가공 화학물질, 플라스틱, 철강, 식물 관련 제품, 금속제품, 비철금속, 전기기기, 기계류, 수송장비 등
한국수입시장 인도 수출우위 품목	곡물, 방직섬유, 동식물성 유지, 의약품, 제약품, 석유제품, 가죽, 고무제품, 식물 관련 제품, 비철금속, 철강, 비금속광물제품 등
양국 수입시장 공통 수출우위 품목	화학원소, 화합물, 식물 관련 제품, 철강, 비철금속

주: MCA가 1 이상인 품목을 수출 우위 품목으로 구분함.

자료: [표 3-17]을 정리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표 3-17. 최근 한국과 인도의 시장비교우위지수 비교

품목	한국 MCA			인도 MCA		
	2005	2009	2012	2005	2009	2012
육류	3.26	0.83	0.84	0.94	0.09	0.00
유제품 및 계란	0.00	0.00	0.01	0.98	0.08	0.03
수산물	0.02	0.16	0.00	1.37	0.41	0.53
곡물	0.35	1.43	0.21	0.01	0.02	6.08
과일	0.00	0.00	0.00	0.39	0.37	0.57
설탕	0.11	0.01	0.05	0.53	0.06	0.01
커피	0.00	0.01	0.10	0.96	0.38	0.98
비제분 곡물을 제외한 사료	0.20	0.14	0.10	11.51	5.02	11.54
기타 식품	0.38	0.67	0.28	0.10	0.12	0.23
음료	0.06	0.06	0.04	0.07	0.00	0.02
담배	0.00	0.95	0.00	1.47	9.38	11.27
가죽, 모피	0.00	0.00	0.00	0.10	0.21	0.00
유지종자, 유지건과	0.99	0.11	0.05	6.53	2.27	10.74
생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2.72	4.89	5.37	0.58	0.42	0.09

표 3-17. 계속

품목	한국 MCA			인도 MCA		
	2005	2009	2012	2005	2009	2012
목재	0.00	0.00	0.00	0.00	0.02	0.03
펄프, 제지	0.00	0.00	0.00	0.00	0.00	0.00
방직섬유 (비제조, 폐기)	0.61	0.39	0.59	2.20	1.75	2.30
미가공 비료, 광물	0.05	0.03	0.12	1.53	0.86	1.63
금속광석, 금속스크랩	0.24	0.11	0.14	3.35	1.65	0.52
미가공 동식물자원	0.37	0.49	0.42	2.92	1.05	1.83
석탄, 코크스, 연탄	0.00	0.00	0.00	0.00	0.04	0.01
석유, 석유제품	0.16	0.19	0.18	1.28	2.76	1.13
천연 및 제조가스	0.00	0.00	0.00	0.00	0.05	0.00
동물성 유지	0.00	0.00	0.00	2.20	0.21	2.58
식물성 고정유지	0.00	0.00	0.00	1.48	0.73	1.02
가공동식물성 유지	0.01	0.04	0.06	6.15	6.69	1.49
화학원소, 화합물	0.56	1.19	1.89	1.84	1.57	2.27
석탄, 석유, 가스의 미가공화학물질	0.06	1.84	4.14	0.00	3.36	0.00
염색, 태닝, 착색 원료	0.67	1.24	1.32	2.22	2.23	2.78
의약품, 제약품	0.34	0.51	0.77	1.44	0.91	1.29
향물질, 세정재료	0.22	0.31	0.33	0.51	0.38	0.71
제조된비료	0.02	0.01	0.06	0.02	0.04	0.05
폭발성 제품, 불꽃제조제품	0.00	0.00	0.00	0.00	0.03	0.00
플라스틱 등	3.67	4.37	4.61	0.30	0.15	0.69
화학재료, 화학제품	1.00	0.99	0.93	0.34	0.36	0.59
가죽, 모피	0.19	0.64	0.58	9.61	4.96	7.22
고무제품	1.42	0.97	1.09	0.30	0.58	1.25
가구를 제외한 목재제조품	0.54	0.72	1.62	0.09	0.08	0.13
제지, 판지	2.30	3.02	2.34	0.08	0.45	0.07
직물용 실, 직물, 기성품	1.79	1.57	1.53	11.11	4.25	6.17
비금속광물제조품	0.04	0.03	0.03	0.96	0.58	1.02
철강	3.14	4.34	5.76	1.88	0.86	2.81
비철금속	1.62	1.15	2.32	1.12	1.51	4.21
금속제조품	2.44	4.35	2.55	0.76	0.22	0.30
전기제외 기계류	1.40	1.53	1.90	0.23	0.26	0.29
전기기기 및 기계류	4.04	1.76	1.86	0.08	0.07	0.13

표 3-17. 계속

품목	한국 MCA			인도 MCA		
	2005	2009	2012	2005	2009	2012
수송장비	3.72	3.70	5.18	1.33	0.20	0.24
위생, 배관, 난방, 조명기구	0.32	0.05	0.26	0.01	0.05	0.07
가구	0.23	1.77	1.45	0.08	0.03	0.25
여행용품, 핸드백 및 유사물품	0.14	0.04	1.23	0.39	0.06	0.24
의류	0.81	0.27	0.16	0.29	0.35	0.63
신발	0.04	0.03	0.01	0.10	0.21	0.16
과학 및 제어장치, 사진 관련 용품, 시계	0.30	0.95	0.99	0.03	0.05	0.05
기타 제조품	0.36	0.45	0.36	0.19	0.10	0.20
동물원 동물, 개, 고양이 포함 동물	0.00	0.01	0.00	0.00	0.02	0.00
총기, 탄약	0.00	0.01	0.01	0.00	0.00	4.47
금동전을 제외한 동전, 법정통화제외	-	0.00	-	0.00	0.00	0.00

자료: UN Comtrade DB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SITC 2단위로 계산함)(2013. 11. 1).

한국의 시장비교우위지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한국은 인도 수입시장에 1980년부터 현재까지 고무제품, 직물 관련 제품,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조품, 전기기기, 기계류, 수송 장비 분야에서 꾸준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섬유, 의료품, 제약품, 의류, 신발 등은 점차 경쟁력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표 3-18. 한국의 대인도 MCA 지수 추이

품목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2012
육류	0.00	0.00	-	0.00	3.26	0.83	0.84
유제품 및 계란	0.00	0.00	-	0.05	0.00	0.00	0.01
수산물	4.32	719.26	-	3.26	0.02	0.16	0.00
곡물	0.00	0.00	-	0.31	0.35	1.43	0.21
과일	0.00	0.01	-	0.00	0.00	0.00	0.00
설탕	0.01	0.20	0.26	0.54	0.11	0.01	0.05
커피	0.00	0.00	0.01	0.00	0.00	0.01	0.10
비제분 곡물을 제외한 사료	0.00	0.00	0.17	1.28	0.20	0.14	0.10

표 3-18. 계속

품목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2012
기타 식품	0.00	0.04	0.33	0.14	0.38	0.67	0.28
음료	13.59	1.12	0.00	0.16	0.06	0.06	0.04
담배	0.00	0.00	0.01	0.01	0.00	0.95	0.00
가죽, 모피	0.00	0.02	0.00	0.00	0.00	0.00	0.00
유지종자, 유지견과	0.00	0.00	0.00	0.00	0.99	0.11	0.05
생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0.00	2.67	1.32	3.46	2.72	4.89	5.37
목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펄프, 제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방직섬유(비제조, 폐기)	0.48	2.41	1.73	0.34	0.61	0.39	0.59
미가공 비료, 광물	0.00	0.00	0.12	0.15	0.05	0.03	0.12
금속광석, 금속스크랩	0.00	0.00	0.02	0.20	0.24	0.11	0.14
미가공 동식물자원	0.00	1.87	0.59	1.76	0.37	0.49	0.42
석탄, 코크스, 연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석유, 석유제품	0.00	0.09	0.01	0.28	0.16	0.19	0.18
천연 및 제조가스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동물성 유지	0.00	0.00	0.09	0.60	0.00	0.00	0.00
식물성 고정유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가공동식물성 유지	0.00	0.00	0.01	0.00	0.01	0.04	0.06
화학원소, 화합물	0.18	0.83	1.36	1.39	0.56	1.19	1.89
석탄, 석유, 가스의 미가공화학물질		0.14	0.71	0.00	0.06	1.84	4.14
염색, 태닝, 착색 원료	0.00	1.28	1.38	0.92	0.67	1.24	1.32
의료품, 제약품	0.00	1.68	1.12	0.95	0.34	0.51	0.77
향물질, 세정재료	11.52	0.00	0.10	0.07	0.22	0.31	0.33
제조된 비료	0.82	0.00	0.02	0.16	0.02	0.01	0.06
폭발성 제품, 불꽃제조제품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플라스틱 등	14.73	5.73	7.15	5.68	3.67	4.37	4.61
화학재료, 화학제품	0.73	0.53	0.82	0.55	1.00	0.99	0.93
가죽, 모피	0.00	1.97	0.98	0.61	0.19	0.64	0.58
고무제품	0.98	1.41	0.94	1.42	1.42	0.97	1.09
가구를 제외한 목재제조품	1.14	14.82	0.82	0.20	0.54	0.72	1.62
제지, 판지	0.05	0.28	0.04	2.34	2.30	3.02	2.34

표 3-18. 계속

품목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2012
직물용 실, 직물, 기성품	5.45	11.03	6.90	8.70	1.79	1.57	1.53
비금속광물제조품	6.33	0.17	0.06	0.05	0.04	0.03	0.03
비금속광물제조품	6.33	0.17	0.06	0.05	0.04	0.03	0.03
철강	6.07	3.14	1.72	4.61	3.14	4.34	5.76
비철금속	0.37	1.27	1.49	1.39	1.62	1.15	2.32
금속제조품	0.05	14.90	5.61	1.49	2.44	4.35	2.55
전기제외 기계류	0.11	0.75	1.32	1.84	1.40	1.53	1.90
전기기기 및 기계류	0.44	1.28	1.47	3.20	4.04	1.76	1.86
수송장비	1.02	4.02	5.53	4.71	3.72	3.70	5.18
위생, 배관, 난방, 조명기구	0.00	0.00	0.06	0.09	0.32	0.05	0.26
가구	0.00	4.77	0.71	19.66	0.23	1.77	1.45
여행용품, 핸드백 및 유사물품	535.18		0.57	0.69	0.14	0.04	1.23
의류	1.28	7.78	3.43	5.43	0.81	0.27	0.16
신발		34.81	7.85	0.03	0.04	0.03	0.01
과학 및 제어장치, 사진 관련 용품, 시계	1.25	0.25	0.25	0.74	0.30	0.95	0.99
기타 제조품	1.00	1.41	0.64	0.75	0.36	0.45	0.36
동물원 동물, 개, 고양이 포함 동물		0.00			0.00	0.01	0.00
총기, 탄약		0.00	0.00	0.00	0.00	0.01	0.01
금동전을 제외한 동전, 법정통화제외		0.00	0.00	0.00		0.00	

자료: UN Comtrade DB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SITC 2단위로 계산함)(2013. 11. 1).

인도는 한국 수입시장에서 1980년부터 현재까지 방직섬유, 비료, 동식물성 유지, 의약품, 제약품, 가죽, 직물 관련 제품, 철강, 비철금속 등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산물, 곡물, 의류, 신발 등은 과거 경쟁력이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쟁력이 낮아진 반면, 석유제품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쟁력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3-19. 인도의 대한국 MCA 지수

품목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2012
육류	1.30	0.02	0.03	0.01	0.94	0.09	0.00
유제품 및 계란	0.00	0.00	0.24	0.69	0.98	0.08	0.03
수산물	0.00	0.27	1.56	1.74	1.37	0.41	0.53
곡물	2.17	0.00	2.43	0.02	0.01	0.02	6.08
과일	0.00	0.48	1.04	0.67	0.39	0.37	0.57
설탕	0.00	0.00	1.31	0.66	0.53	0.06	0.01
커피	1.56	0.52	0.18	0.91	0.96	0.38	0.98
비제분 곡물을 제외한 사료	145.08	0.00	45.52	35.98	11.51	5.02	11.54
기타 식품	0.00	0.00	0.09	0.15	0.10	0.12	0.23
음료	0.00	0.00	0.00	0.00	0.07	0.00	0.02
담배	0.00	0.04	0.13	0.06	1.47	9.38	11.27
가죽, 모피	0.00	0.00	0.00	0.00	0.10	0.21	0.00
유지종자, 유지견과	0.00	0.34	0.06	0.84	6.53	2.27	10.74
생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0.00	0.00	0.04	0.11	0.58	0.42	0.09
목재	0.04	0.00	0.00	0.03	0.00	0.02	0.03
펄프, 제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방직섬유 (비제조, 폐기)	2.47	5.05	0.09	0.49	2.20	1.75	2.30
미가공 비료, 광물	0.42	4.70	1.98	3.47	1.53	0.86	1.63
금속광석, 금속스크랩	18.85	12.25	4.47	2.95	3.35	1.65	0.52
미가공 동식물자원	3.91	4.12	1.17	2.74	2.92	1.05	1.83
석탄, 코크스, 연탄	0.00	0.00	0.00	0.00	0.00	0.04	0.01
석유, 석유제품	0.00	0.00	0.00	0.06	1.28	2.76	1.13
천연 및 제조가스	0.00	0.00	0.31	0.00	0.00	0.05	0.00
동물성 유지	0.00	0.00	0.00	0.22	2.20	0.21	2.58
식물성 고정유지	9.36	2.53	1.16	2.54	1.48	0.73	1.02
가공동식물성 유지	0.00	0.42	1.10	1.80	6.15	6.69	1.49
화학원소, 화합물	0.04	1.89	2.01	2.15	1.84	1.57	2.27
석탄, 석유, 가스의 미가공화학물질	0.00	0.00	0.00	0.00	0.00	3.36	0.00
염색, 태닝, 착색 원료	0.68	4.58	4.88	4.06	2.22	2.23	2.78
의약품, 제약품	0.20	3.59	4.84	4.97	1.44	0.91	1.29
향물질, 세정재료	0.00	0.05	0.41	0.48	0.51	0.38	0.71
제조된 비료	0.00	0.00	3.43	0.00	0.02	0.04	0.05
폭발성 제품, 불꽃제조제품	0.00	0.00	0.00	0.01	0.00	0.03	0.00

표 3-19. 계속

품목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2012
플라스틱 등	0.00	0.06	0.36	0.21	0.30	0.15	0.69
화학재료, 화학제품	0.00	0.22	1.09	0.42	0.34	0.36	0.59
가죽, 모피	2.68	3.90	2.06	6.98	9.61	4.96	7.22
고무제품	0.00	0.00	0.46	0.28	0.30	0.58	1.25
가구를 제외한 목재제조품	0.00	0.16	0.13	0.05	0.09	0.08	0.13
제지, 판지	0.00	0.00	0.11	0.18	0.08	0.45	0.07
직물용 실, 직물, 기성품	1.35	3.00	8.22	16.40	11.11	4.25	6.17
비금속광물제조품	3.63	0.75	1.11	2.58	0.96	0.58	1.02
철강	0.23	0.81	1.43	1.98	1.88	0.86	2.81
비철금속	0.00	1.58	0.30	1.20	1.12	1.51	4.21
금속제조품	0.03	0.26	0.27	0.93	0.76	0.22	0.30
전기제외 기계류	0.31	0.05	0.10	0.12	0.23	0.26	0.29
전기기기 및 기계류	0.00	0.14	0.12	0.10	0.08	0.07	0.13
수송장비	0.20	0.07	0.03	0.43	1.33	0.20	0.24
위생, 배관, 난방, 조영기구	0.00	0.00	0.00	0.10	0.01	0.05	0.07
가구	0.00	0.00	0.00	0.29	0.08	0.03	0.25
여행용품, 핸드백 및 유사물품	0.00	0.44	1.02	0.47	0.39	0.06	0.24
의류	0.00	2.33	2.29	1.21	0.29	0.35	0.63
신발	0.00	2.30	1.77	0.16	0.10	0.21	0.16
과학 및 제어장치, 사진 관련 용품, 시계	0.00	0.02	0.01	0.11	0.03	0.05	0.05
기타 제조품	0.11	0.53	0.51	0.55	0.19	0.10	0.20
동물원 동물, 개, 고양이 포함 동물	0.00	0.00	0.00	0.00	0.00	0.02	0.00
총기, 탄약	0.00	0.00	0.00	0.00	0.00	0.00	4.47
금동전을 제외한 동전, 법정통화제외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료: UN Comtrade DB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SITC 2단위로 계산함)(2013. 11. 1).

## 나. 분업관계

### 1) 산업내무역지수(IIT: Intra Industry Trade)

산업내무역지수를 사용하여 한국과 인도의 분업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을 기준으로 인도에 대한 산업내무역지수를 측정하였으며 분야별로 산

업내무역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GL(Grubel-Lloyd) 지수를 사용하였다.<sup>43)</sup>

$$GL_{ij}^k = \sum_{k=1}^n \left(1 - \left(\frac{|X_{ij}^k - M_{ij}^k|}{X_{ij}^k + M_{ij}^k}\right)\right) * W_{ij}^k \quad \text{식 (3-4)}$$

GL 지수는 수출, 수입 특화정도가 높을수록 산업내무역이 저조하고 특화정도가 낮을수록 활발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따라서 수학적으로는 앞서 경쟁관계 분석에서 구한 수출특화지수를 1에서 차감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GL 지수가 크다는 것은 특화정도가 낮아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고 만약 특화정도가 높으면 산업내무역이 저조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GL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수출 또는 수입 특화 정도가 높고 1에 가까우면 수출과 수입 규모가 같다는 뜻으로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의 GL 지수 측정 결과 양국 GL 지수는 1980년부터 현재(2012년)까지 기간별로 변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부터 2000년 까지 GL 지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산업내무역 비중

43) G-L 지수, 특정  $i$  산업의 산업내무역지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GL_{ij}^k = \frac{(X_i - M_i) - |X_i - M_i|}{(X_i + M_i)} = 1 - \left(\frac{|X_i - M_i|}{X_i + M_i}\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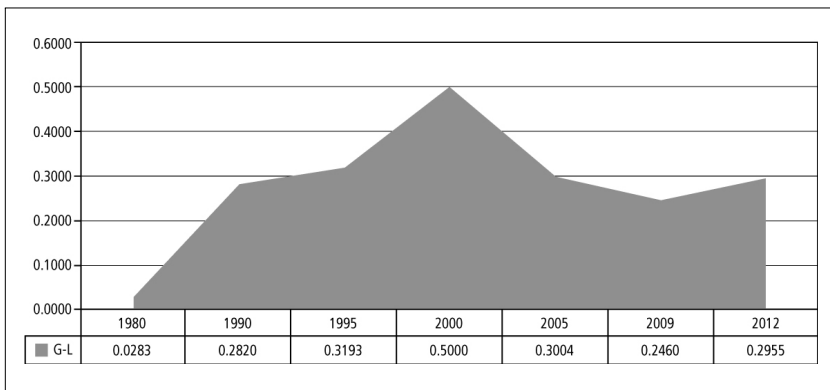
전체 산업내무역지수는, 세부산업의 산업내무역지수를 전체 교역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GL_{Total} = 1 - \frac{\sum_{i=1}^n |X_i - M_i|}{\sum_{i=1}^n (X_i + M_i)}$$

이 높아졌으나 이후 2009년까지 다시 감소하였다. 하지만 한·인도 CEPA 이후인 2012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최근 한·인도 교역이 산업내무역 형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시기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는 GL 지수의 크기가 0.5 이하로 나타나 양국간 산업내무역의 정도는 낮은 편으로 아직까지 수입, 또는 수출특화가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야별로 GL 지수를 살펴본 결과 지수가 0.5 이상인 양국간 산업내무역 정도가 높은 분야는 방직섬유, 의약품 및 제약품, 화학재료 및 화

그림 3-8. 한·인도 전체 G-L 지수 추이



자료: UN Comtrade DB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SITC 2단위로 계산함)(2013. 1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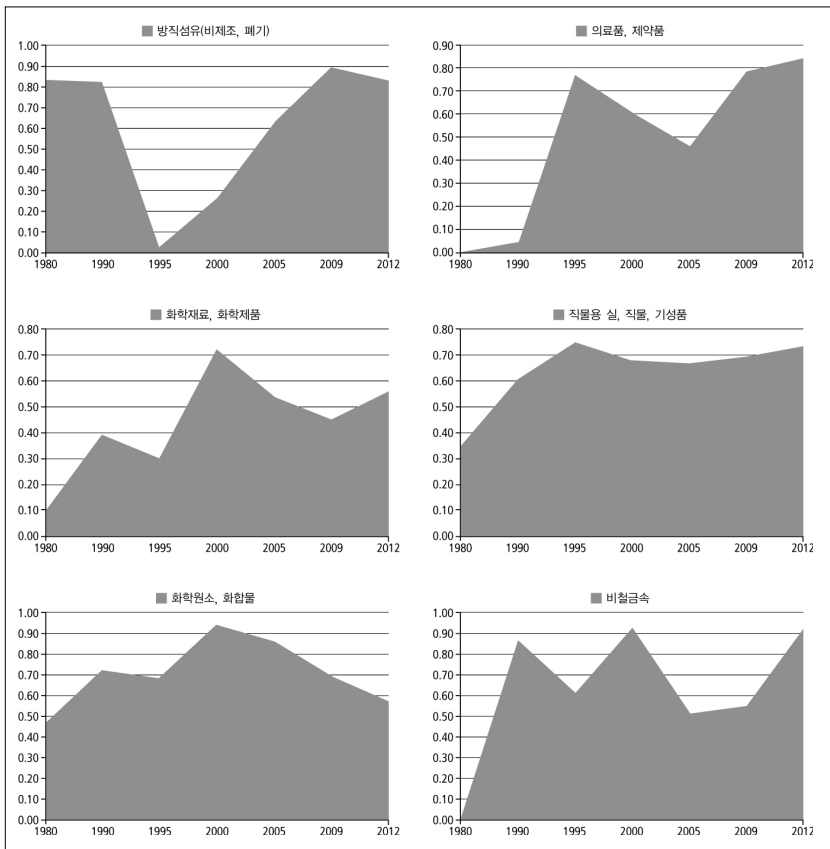
표 3-20. 한국과 인도의 산업내무역 추세

구분	품목	
산업내무역 품목	활성화 추세	방직섬유, 의약품 및 제약품, 직물 관련 제품, 비철금속 등
	감소 추세	화학원소 및 화합물, 화학재료 및 화학제품
수입, 또는 수출 특화 품목 (산업간 무역)	석유제품, 전기기기, 기계류, 철강, 수송장비, 의류 등	

주: GL 지수가 0.5 이상인 품목을 산업내무역, 0.5 미만은 산업 간 무역 특성이 강한 품목으로 구분함. 추세는 2005년 이후 추세를 반영함.

학제품, 식물 관련 제품, 비철금속, 화학원소 및 화합물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방직섬유, 의약품 및 제약품, 식물 관련 제품 등은 1990년대 중반 또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내무역의 정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반면 화학원소 및 화합물, 비철금속, 화학재료 및 화학제품 등은 산업내무역 정도의 변동성이 크거나 2000년대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수출 또는 수입특화의 정도가 오히려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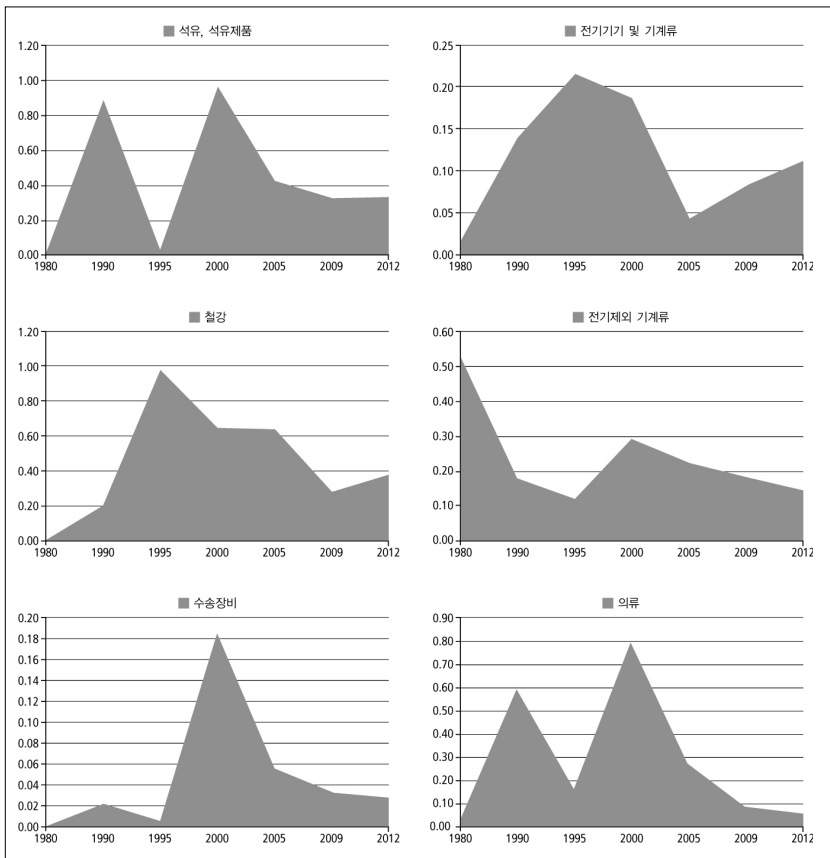
그림 3-9. 산업내무역 활성화 분야의 G-L 지수 추이



자료: UN Comtrade DB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SITC 2단위로 계산함)(2013. 11. 1).

GL 지수가 0.5 미만으로 수출 또는 수입 특화정도가 높은 분야는 석유 및 석유제품, 전기기기, 철강, 기계류, 수송 장비, 의류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기기기는 2005년 GL 지수가 다시 높아지면서 산업내무역 형태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나머지 분야는 대체로 1995년 또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점차 GL 지수가 감소하는 수출 또는 수입 특화형태의 교역 특징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산업간무역 활성화 분야의 G-L 지수 추이



자료: UN Comtrade DB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SITC 2단위로 계산함)(2013. 11. 1).

## 2) 무역결합도지수

무역결합도지수(TII: Trade Intensity Index)는 한국과 인도 양국 교역을 세계시장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서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 국가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상대 교역국의 수출 비중이 상대 교역국의 총수입이 전 세계 총 수입액 비중보다 크다는 의미로, 양국간 무역결합도가 상대교역국 입장에서 볼 때 세계 시장의 평균적인 결합도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즉, 지수가 1보다 크면 양국의 특정 분야에 대한 수출진밀도가 세계평균보다 높고, 1보다 작으면 세계평균보다 낮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한국(*i*)의 총수출에서 인도(*j*)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총수입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누면 세계수입시장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한국의 인도 수출 비중을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TII_{ij} = \frac{X_{ij} / X_i}{M_j / M_w} \quad \text{식 (3-5)}$$

*TII<sub>ij</sub>*: *i*국가의 *j*국에 대한 무역결합도지수

*X<sub>ij</sub>*: *i*국가 *j*에 대한 수출액, *X<sub>i</sub>*: *i*국가의 총 수출액

*M<sub>j</sub>*: *j*국가 총 수입액, *M<sub>w</sub>*: 전 세계 총 수입액

분석 결과 2012년 기준 한국의 대인도 무역결합도지수가 1 이상으로 나타난 분야는 고무제품, 비료, 금속광석, 화학원소 및 화합물, 의약품, 제약품, 플라스틱,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조품, 기계류 등이다. 이 분야 대부분은 2005년부터 꾸준히 무역결합도가 1 이상을 유지했으며 특히 이

중 고무, 금속광석, 철강 등은 2 이상의 높은 무역결합도를 보였다. 한편 석유제품, 화학제품, 수송 장비 등은 2005년 또는 2009년까지 무역결합도가 1 이상이었으나 2012년 1 이하로 감소하였다.

인도의 대한민국 무역결합도지수가 1 이상인 분야 기타식품, 고무, 식물성 유지, 비철금속, 금속제조품 등으로 2005년부터 꾸준히 1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수가 1 이하로 한국과 수출긴밀도가 세계평균보다 낮은 분야가 한국의 대인도 무역결합도지수 분석 때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석유제품, 천연 및 제조가스, 의약품, 제약품 등은 2009년까지 높은 무역결합도지수를 나타냈지만 2012년에 1 이하로 전환되었다.

표 3-21. 한국과 인도의 무역결합도 상위 품목(2012년 기준)

구분	품목
한국의 대인도 무역 결합도 상위 품목	고무제품, 비료, 금속광석, 화학원소 및 화합물, 의약품, 제약품, 플라스틱,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조품, 기계류 등
인도의 대한민국 무역결합도 상위 품목	기타식품, 고무, 식물성 유지, 비철금속, 금속제조품 등
공통 품목	고무, 비철금속, 금속제조품

주: 무역결합도지수가 1 이상인 품목만 포함.  
 자료: [표 3-22]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표 3-22. 최근 한국과 인도의 무역결합도지수 비교

품목	한국 TII			인도 TII		
	2005	2009	2012	2005	2009	2012
육류	0.28	0.20	0.08	0.00	0.00	0.00
유제품 및 계란	0.01	0.00	0.04	0.56	0.06	0.00
수산물	0.00	0.01	0.00	0.28	0.07	0.02
곡물	0.15	0.53	0.03	0.45	0.29	0.14
과일	0.01	0.02	0.00	0.00	0.01	0.84
설탕	0.43	0.10	0.06	0.07	0.12	0.15

표 3-22. 계속

품목	한국 TII			인도 TII		
	2005	2009	2012	2005	2009	2012
커피	0.01	0.05	0.24	0.74	0.20	0.00
비제분 곡물을 제외한 사료	1.14	0.44	0.22	0.08	0.05	0.08
기타 식품	0.08	0.16	0.03	3.13	2.16	2.54
음료	0.05	0.05	0.02	0.00	0.00	0.00
담배	0.00	0.14	0.00	0.16	0.01	0.01
가죽, 모피	0.00	0.00	0.00	0.00	0.00	0.00
유지종자, 유지건과	60.61	31.68	1.66	1.22	1.82	0.13
생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3.82	5.71	3.62	2.42	1.40	1.69
목재	0.11	0.00	0.29	1.00	2.12	0.23
펄프, 제지	0.12	0.05	0.02	0.09	0.34	0.24
방직섬유 (비제조, 폐기)	1.18	0.73	0.55	0.00	0.00	0.00
미가공 비료, 광물	1.25	1.00	1.48	0.78	0.36	0.15
금속광석, 금속스크랩	5.03	1.79	2.12	0.36	0.25	0.23
미가공 동식물자원	0.44	0.73	0.25	1.43	1.65	1.03
석탄, 코크스, 연탄	0.00	0.00	0.00	0.00	0.00	0.00
석유, 석유제품	1.17	1.31	0.51	0.00	1.16	0.10
천연 및 제조가스	0.05	0.09	0.03	1.46	3.23	0.70
동물성 유지	0.00	0.00	0.00	0.00	0.00	0.00
식물성 고정유지	0.00	0.01	0.00	1.40	1.47	1.27
가공동식물성 유지	0.79	1.38	0.45	0.62	0.45	0.35
화학원소, 화합물	1.01	1.95	1.45	0.00	0.00	0.00
석탄, 석유, 가스의 미가공화학물질	0.18	1.00	0.91	0.95	1.22	0.84
염색, 태닝, 착색 원료	0.96	2.02	0.98	0.00	4.51	0.00
의약품, 제약품	1.81	1.98	1.61	0.88	1.33	0.81
향물질, 세정재료	0.29	0.40	0.19	0.24	0.23	0.13
제조된비료	0.59	0.20	0.85	0.27	0.22	0.18
폭발성 제품, 불꽃제조제품	0.00	0.00	0.00	0.12	0.06	0.10
플라스틱 등	1.70	2.62	1.52	0.00	0.01	0.00
화학재료, 화학제품	2.00	2.21	0.87	0.17	0.19	0.15
가죽, 모피	0.13	0.56	0.24	0.00	0.00	0.00
고무제품	0.45	0.50	0.27	1.34	1.09	0.85
가구를 제외한 목재제조품	1.32	2.54	2.82	0.05	0.16	0.14

표 3-22. 계속

품목	한국 TII			인도 TII		
	2005	2009	2012	2005	2009	2012
제지, 판지	2.62	4.04	1.69	0.22	0.24	0.15
직물용 실, 직물, 기성품	0.95	0.86	0.43	0.05	0.47	0.03
비금속광물제조품	1.03	0.96	0.33	1.11	0.72	0.48
철강	2.63	4.30	2.12	0.05	0.06	0.06
비철금속	2.76	2.48	1.63	1.15	0.94	1.20
금속제조품	1.69	2.99	1.00	1.25	1.46	2.93
전기제외 기계류	1.40	2.12	1.22	0.00	0.00	0.00
전기기기 및 기계류	1.50	1.01	0.46	0.36	0.55	0.28
수송장비	0.95	1.17	0.65	0.35	0.17	0.20
위생, 배관, 난방, 조명기구	0.46	0.10	0.12	0.00	0.00	0.00
가구	0.24	2.42	1.10	0.01	0.05	0.03
여행용품, 핸드백 및 유사물품	0.12	0.10	0.78	0.06	0.04	0.11
의류	0.06	0.06	0.03	0.07	0.03	0.10
신발	0.04	0.07	0.02	0.02	0.04	0.07
과학 및 제어장치, 사진 관련 용품, 시계	0.17	0.29	0.16	0.02	0.06	0.04
기타 제조품	0.38	0.77	0.48	0.00	0.00	0.00
동물원 동물, 개, 고양이 포함 동물	0.00	0.02	0.01	0.09	0.04	0.02
총기, 탄약	0.00	0.00	0.00	0.00	0.25	0.00
금동전을 제외한 동전, 법정통화제외	0.00	0.00	0.00	0.00	0.00	9.85

자료: UN Comtrade DB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함(SITC 2단위로 계산함)(2011. 13. 11).

한국의 대인도 무역결합도지수를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한국은 인도에 대해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철강, 비철금속 부문에서 꾸준히 세계평균보다 높은 수출긴밀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의 고무, 비료, 광물, 금속광성, 화학원소, 화합물, 의약품, 제약품, 기계류 등에서는 1990년 또는 2000년부터 높은 수출긴밀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수송장비, 전기기기 등에 대해서는 세계평균보다 일시적으로 높아졌을 뿐 지속적으로 높은 수출긴밀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3. 한국의 대인도 무역결합도지수 추이

품목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2012
육류	0,00	0,00	0,00	0,00	0,28	0,20	0,08
유제품 및 계란	0,00	0,00	0,00	0,40	0,01	0,00	0,04
수산물	0,06	0,02	0,00	0,04	0,00	0,01	0,00
곡물	0,00	0,00	0,03	0,34	0,15	0,53	0,03
과일	0,00	0,03	0,00	0,01	0,01	0,02	0,00
설탕	0,01	0,03	0,33	0,64	0,43	0,10	0,06
커피	0,00	0,00	0,01	0,01	0,01	0,05	0,24
비제분 곡물을 제외한 사료	0,00	0,00	0,75	3,61	1,14	0,44	0,22
기타 식품	0,00	0,04	0,06	0,03	0,08	0,16	0,03
음료	0,37	0,36	0,00	0,03	0,05	0,05	0,02
담배	0,00	0,00	0,00	0,00	0,00	0,14	0,00
가죽, 모피	0,00	0,22	0,00	0,00	0,00	0,00	0,00
유지종자, 유지견과	0,00	0,00	0,00	0,00	60,61	31,68	1,66
생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0,00	11,55	7,45	5,26	3,82	5,71	3,62
목재	0,00	0,00	0,00	0,00	0,11	0,00	0,29
펄프, 제지	0,00	0,00	0,00	0,00	0,12	0,05	0,02
방직섬유 (비제조, 폐기)	2,08	4,43	4,41	0,83	1,18	0,73	0,55
미가공 비료, 광물	0,00	0,02	1,97	2,22	1,25	1,00	1,48
금속광석, 금속스크랩	0,00	0,11	1,43	7,26	5,03	1,79	2,12
미가공 동식물자원	0,00	0,48	0,36	1,48	0,44	0,73	0,25
석탄, 코크스, 연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석유, 석유제품	0,03	2,25	0,19	1,93	1,17	1,31	0,51
천연 및 제조가스	0,00	0,00	0,00	0,00	0,05	0,09	0,03
동물성 유지	0,00	0,00	0,19	2,41	0,00	0,00	0,00
식물성 고정유지	0,00	0,00	0,00	0,01	0,00	0,01	0,00
가공동식물성 유지	0,00	0,00	0,19	0,00	0,79	1,38	0,45
화학원소, 화합물	0,58	3,10	5,07	2,38	1,01	1,95	1,45
석탄, 석유, 가스의 미가공 화학물질	0,00	0,08	4,88	0,00	0,18	1,00	0,91
염색, 태닝, 착색 원료	0,01	1,83	2,04	1,03	0,96	2,02	0,98
의약품, 제약품	0,00	9,53	7,52	3,76	1,81	1,98	1,61
향물질, 세정재료	19,72	0,00	0,21	0,15	0,29	0,40	0,19
제조된 비료	2,58	0,00	0,35	2,22	0,59	0,20	0,85
폭발성 제품, 불꽃제조제품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표 3-23. 계속

품목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2012
플라스틱 등	20,32	8,45	5,32	1,75	1,70	2,62	1,52
화학재료, 화학제품	7,52	1,85	2,17	0,90	2,00	2,21	0,87
가죽, 모피	0,00	0,90	0,26	0,19	0,13	0,56	0,24
고무제품	0,06	0,21	0,28	0,40	0,45	0,50	0,27
가구를 제외한 목재제품	0,01	3,33	0,71	0,17	1,32	2,54	2,82
제지, 판지	0,11	0,40	0,06	1,89	2,62	4,04	1,69
직물용 실, 직물, 기성품	0,29	1,10	0,84	1,46	0,95	0,86	0,43
비금속광물제품	16,57	1,40	0,93	1,02	1,03	0,96	0,33
철강	5,08	2,28	1,88	1,94	2,63	4,30	2,12
비철금속	2,89	5,36	7,26	2,89	2,76	2,48	1,63
금속제품	0,01	3,10	1,72	0,69	1,69	2,99	1,00
전기제외 기계류	0,51	0,88	2,05	0,96	1,40	2,12	1,22
전기기기 및 기계류	0,12	0,27	0,36	0,64	1,50	1,01	0,46
수송장비	0,76	1,46	1,62	0,73	0,95	1,17	0,65
위생, 배관, 난방, 조명기구	0,00	0,00	0,02	0,05	0,46	0,10	0,12
가구	0,00	0,10	0,12	7,77	0,24	2,42	1,10
여행용품, 핸드백 및 유사물품	0,03	0,00	0,00	0,03	0,12	0,10	0,78
의류	0,00	0,00	0,02	0,08	0,06	0,06	0,03
신발	0,01	0,01	0,01	0,00	0,04	0,07	0,02
과학 및 제어장치, 사진 관련 용품, 시계	1,03	0,43	0,46	1,27	0,17	0,29	0,16
기타 제품	0,06	0,16	0,24	0,39	0,38	0,77	0,48
동물원 동물, 개, 고양이 포함 동물	0,00	0,00	0,00	0,00	0,00	0,02	0,01
총기, 탄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금동전을 제외한 동전, 법정통화제외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료: UN Comtrade DB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SITC 2단위로 계산함)(2013. 11. 1).

인도는 한국에 대해 미가공 동식물자원, 금속제품 등에서만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비교적 높은 수출긴밀도를 보였다. 이밖의 기타식품, 고무 부문에서 2005년부터 수출긴밀도가 세계평균보다 높았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평균보다 일시적으로 높아지기는 했지만 수출긴밀도가 꾸준히 이어지지는 않았다.

표 3-24. 인도의 대한국 무역결합도지수

품목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2012
육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유제품 및 계란	0,09	0,01	0,02	0,00	0,56	0,06	0,00
수산물	0,00	0,00	0,28	0,35	0,28	0,07	0,02
곡물	0,00	0,02	0,15	0,19	0,45	0,29	0,14
과일	2,27	0,00	0,37	0,01	0,00	0,01	0,84
설탕	0,00	0,04	0,10	0,05	0,07	0,12	0,15
커피	0,00	0,00	0,57	0,36	0,74	0,20	0,00
비제분 곡물을 제외한 사료	0,02	0,01	0,01	0,03	0,08	0,05	0,08
기타 식품	0,99	0,00	4,43	4,88	3,13	2,16	2,54
음료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담배	0,00	0,00	0,00	0,00	0,16	0,01	0,01
가죽, 모피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유지종자, 유지견과	0,00	0,00	0,00	0,00	1,22	1,82	0,13
생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0,00	0,15	0,02	0,18	2,42	1,40	1,69
목재	0,00	0,00	0,43	0,79	1,00	2,12	0,23
펄프, 제지	0,57	0,78	0,00	0,96	0,09	0,34	0,24
방식섬유 (비제조, 폐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미가공 비료, 광물	2,07	1,82	0,20	0,43	0,78	0,36	0,15
금속광석, 금속스크랩	0,23	1,50	0,54	0,54	0,36	0,25	0,23
미가공 동식물자원	5,50	5,27	2,97	2,88	1,43	1,65	1,03
석탄, 코크스, 연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석유, 석유제품	0,00	0,00	0,00	0,01	0,00	1,16	0,10
천연 및 제조가스	0,00	0,00	0,01	0,16	1,46	3,23	0,70
동물성 유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식물성 고정유지	0,00	0,00	0,00	0,44	1,40	1,47	1,27
가공동식물성 유지	2,11	0,83	0,16	0,26	0,62	0,45	0,35
화학원소, 화합물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석탄, 석유, 가스의 미가공 화학물질	0,22	2,31	1,80	0,94	0,95	1,22	0,84
염색, 태닝, 착색 원료	0,00	0,00	0,00	0,00	0,00	4,51	0,00
의약품, 제약품	0,29	1,44	1,53	0,89	0,88	1,33	0,81
향물질, 세정재료	0,03	0,27	0,55	0,40	0,24	0,23	0,13
제조된 비료	0,00	0,01	0,16	0,15	0,27	0,22	0,18
폭발성 제품, 불꽃제조제품	0,00	0,00	2,34	0,00	0,12	0,06	0,10

표 3-24. 계속

품목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2012
플라스틱 등	0.00	0.00	0.00	0.00	0.00	0.01	0.00
화학재료, 화학제품	0.00	0.19	0.37	0.12	0.17	0.19	0.15
가죽, 모피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고무제품	0.30	0.44	0.39	0.72	1.34	1.09	0.85
가구를 제외한 목재제조품	0.00	0.00	0.07	0.03	0.05	0.16	0.14
제지, 판지	0.00	0.64	0.48	0.13	0.22	0.24	0.15
직물용 실, 직물, 기성품	0.00	0.00	0.11	0.09	0.05	0.47	0.03
비금속광물제조품	0.09	0.34	0.93	1.12	1.11	0.72	0.48
철강	0.14	0.03	0.04	0.05	0.05	0.06	0.06
비철금속	0.52	1.17	1.16	0.82	1.15	0.94	1.20
금속제조품	0.00	4.04	1.10	1.72	1.25	1.46	2.93
전기제외 기계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기기기 및 기계류	0.56	0.13	0.33	0.22	0.36	0.55	0.28
수송장비	0.01	0.53	0.51	0.42	0.35	0.17	0.20
위생, 배관, 난방, 조명기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가구	0.00	0.00	0.00	0.04	0.01	0.05	0.03
여행용품, 핸드백 및 유사물품	0.00	0.00	0.00	0.16	0.06	0.04	0.11
의류	0.00	0.01	0.03	0.02	0.07	0.03	0.10
신발	0.00	0.02	0.08	0.03	0.02	0.04	0.07
과학 및 제어장치, 사진 관련 용품, 시계	0.00	0.03	0.11	0.01	0.02	0.06	0.04
기타 제조품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동물원 동물, 개, 고양이 포함 동물	0.37	0.03	0.04	0.11	0.09	0.04	0.02
총기, 탄약	0.00	0.00	0.00	0.00	0.00	0.25	0.00
금동전을 제외한 동전, 법정통화제외	0.00	0.00	0.00	0.00	0.00	0.00	9.85

자료: UN Comtrade DB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SITC 2단위로 계산함)(2013. 11. 1).

#### 4. 한·인도 교역 구조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구한 다양한 지수를 바탕으로 양국 교역관계가 경쟁적 구조인지 상호 보완적인지 분석하였다. 먼저 양국의 경쟁관계 판단을

위해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사용하여 세계교역시장에서 한국과 인도의 품목별 수출경합도를 비교해보았다. 한편 양국 보완관계는 산업내무역지수를 사용하여 특정 산업에 대해 산업내무역의 정도를 판단하였다. 추가로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사용하여 자국 수입시장에서 교역 상대국의 특정 품목이 여타 품목에 비해 얼마나 경쟁우위에 있는지를 판단, 현시비교우위지수와 함께 고려하여 품목별 경쟁 우위, 열위를 구분하였다.

현시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의 경쟁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양국 모두 고무, 가죽, 전기기기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있어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방직섬유, 석탄 및 석유 등 미가공 화학물질, 플라스틱, 철강, 전기기기, 수송 장비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도는 식료품, 비료, 화학제품, 의약품, 제약품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속광석,

그림 3-11. 세계시장 내 한국과 인도의 업종별 경합도 비교

세계시장 내 한국우위(RCA 10이상)			
세계시장 내 인도열위(RCA 10이하)	방직섬유, 석탄 및 석유 등 미가공 화학물질, 플라스틱, 화학원소, 화합물, 식물 관련 제품, 고무제품, 철강, 수송장비 등	고무, 가죽, 전기기기 등	세계시장 내 인도우위(RCA 10이상)
	금속광석, 펄프, 제지, 석탄, 비금속광물 제조품, 판지, 의류 등	담배, 음료, 육류, 목재, 유제품, 곡물, 식물성 유지, 비료, 화학재료, 화학제품, 의약품, 제약품, 비철금속 등	
세계시장 내 한국열위(RCA 10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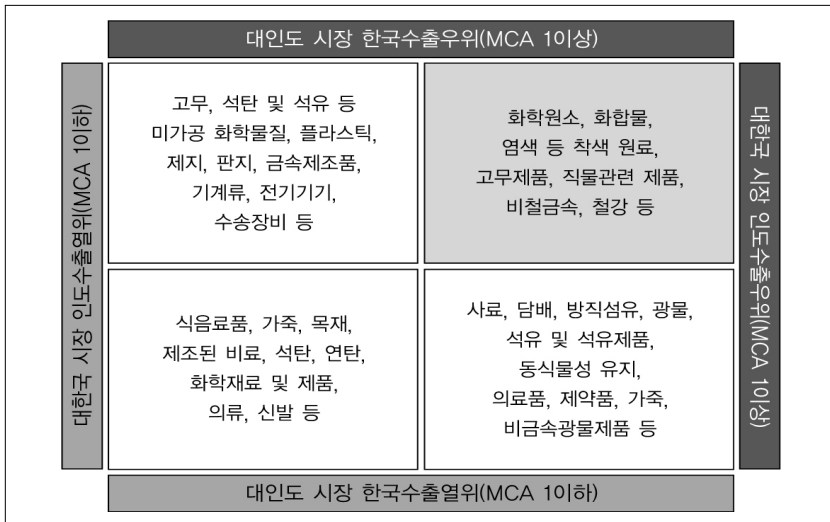
자료: 조충제 외(2010, p. 197)의 경합도 비교방법을 참고 및 인용.

펄프, 제지, 비금속광물 제조품, 의류 등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했다.

한국과 인도의 수입시장에서 상대국가의 업종별 경쟁우위를 살펴본 결과 양국 모두 화학원소, 화합물, 고무제품, 식물 관련 제품, 비철금속, 철강 등의 분야에서 시장비교우위지수가 1 이상으로 나타나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있었다. 또한 한국은 고무, 석탄 및 석유 등 미가공 화학물질, 플라스틱, 제지, 판지, 금속제조품, 기계류, 전기기기, 수송장비 등이 인도 수입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높았으며, 인도는 방직섬유, 광물, 석유 및 석유제품, 의료품, 제약품 등이 한국 수입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았다. 한편 한국과 인도 모두 상대국의 수입시장에서 식음료품, 가축, 목재, 비료, 의류, 신발 등의 분야에서는 비교적 수출경쟁력이 낮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시비교우위와 시장비교우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림 3-12. 한국과 인도의 수입시장 내 업종별 경쟁관계



자료: 조충제 외(2010, p. 198) 경합도 비교방법을 참고 및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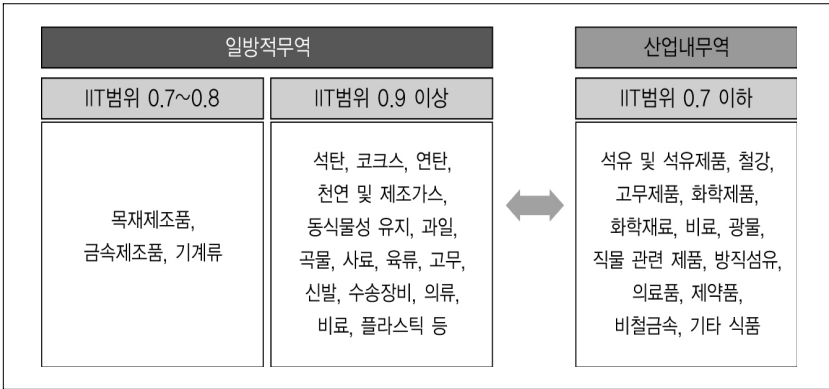
본 결과 한국은 전기기기, 직물 관련 제품, 플라스틱, 철강, 수송장비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또는 인도 수입시장에서 수출비교우위가 있었으며 인도는 동식물성 유지, 방직섬유, 고무, 비철금속, 의약품, 제약품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었다.

한국과 인도의 분업관계는 산업내무역지수를 바탕으로 구분하였다. 앞서 지수별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산업내무역지수가 높다는 것은 국가 간 교역의 보완성이 높다는 의미로 보통 산업내무역은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국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sup>44)</sup> 본 장에서는 업종별로 보완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산업내무역지수의 형태를 편의상 변형하여,<sup>45)</sup>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이하면 산업내무역이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했고 평균 이상이면 일방적 무역의 성격이 크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인도의 산업내무역지수 평균은 0.7로 전체적으로는 일방적 무역 형태를 보였고, 업종별로는 목재 제조품, 금속제조품, 기계류 등에서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일방적 무역 형태가 나타났다. 이 밖의 식음료품, 천연 및 제조가스, 석탄, 연탄, 동식물성 유지, 곡물, 사료, 고무, 신발, 수송장비, 의류, 비료, 플라스틱 등의 분야에서는 일방적 무역의 정도가 비교적 높았다. 한편 석유 및 석유제품, 철강, 고무제품, 화학제품, 섬유, 의약품, 제약품 등에 대해서는 양국에 상대적으로 산업내 무역의 형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조충제 외(2010), p. 199.

45) 여기서의 산업내무역지수는 편의상  $1 - \left(\frac{|X_i - M_i|}{X_i + M_i}\right)$ 가 아닌  $\frac{|X_i - M_i|}{X_i + M_i}$  형태로 고려하여 지수가 높을수록 일방적 무역이 높고 낮을수록 산업내 무역 성격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조충제 외 2010, p. 199).

그림 3-13. 한국과 인도의 분업관계 구분



자료: 조충제 외(2010, p. 200) 분업관계 분석방법을 참고 및 인용.

앞서 다양한 무역지수들로 양국의 교역관계를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한국과 인도의 교역관계는 수출 또는 수입 특화 성향이 높은 산업간 무역의 특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인도보다 전기기기, 기계류, 수송장비 등 중공업 부문에서 비교적 수출우위가 높고 인도는 농산물, 식품, 석유제품 등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시비교우위와 시장비교우위 지수를 살펴봐도 양국은 세계시장이나 상호 수입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많이 겹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추세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쟁관계가 강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찬가지로 산업내무역지수를 살펴보면 GL 지수가 0.5 이하로 낮고 최근 추세 역시 2000년 이후 감소하여 아직까지는 산업내무역보다는 산업간무역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무역결합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상대국에 대한 교역결합도는 세계 평균결합도보다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인도는 세계평균보다 높은 품목이 일부 품목에 불과할뿐더러 지수의 크기도 높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인도의 교역은 여전히 산업간무역

의 특성이 강하고 수출우위가 겹치는 품목이 적어 경쟁도가 높지 않은 교역관계이다. 이는 아직까지 양국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크고 무역장벽이 어느 정도 존재하며, 요소 부존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향후 한·인도 CEPA가 보다 업그레이드됨으로써 양국 교역환경이 변화하고 기업의 투자진출이 활발해진다면 양국의 교역형태는 산업간무역에서 산업내무역으로 점차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제4장 한·인도 양국의 교역량 예측

1. 개요
2. VEC(벡터 오차수정) 모형의 추정을 통한 교역량 예측



## 1. 개요

본 장은 한·인도 양국 교역량 예측(forecasting)을 다룬다. 이웅, 송영철, 조충제(2011)에서 2020년까지의 한·인도 교역량을 예측한 적이 있으나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인도의 성장률 둔화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교역량의 평균성장률 추이만을 이용한 예측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방법론을 도입하여 향후 양국 교역량을 예측하였다.

## 2. VEC(벡터 오차수정) 모형의 추정을 통한 교역량 예측

### 가. 변수의 설정

본 연구와 같이 교역량 추정을 위한 모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중력모형이다. 다양한 버전의 중력모형이 있으나 간단한 형태를 표현하면 [식 4-1]과 같다.<sup>46)</sup>

$$T_{ij} = \frac{A \times Y_i^a \times Y_j^b}{D_{ij}^c} \quad \text{식 (4-1)}$$

$T_{ij}$ 는  $i$ 국과  $j$ 국 간의 교역량,  $Y_i$ 는  $i$ 국의 GDP,  $Y_j$ 는  $j$ 국의 GDP,  $D_{ij}$ 는  $i$ 와  $j$ 국 양국 간 거리를 말한다.  $A$ 는 상수항이며  $a$ ,  $b$ ,  $c$ 는 각각의

---

46) Krugman and Obstfeld(2006), p. 13.

변수가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 4-1]은 양국간 교역량이 각국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커지며 양국의 거리가 멀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7)</sup> 여기서  $a=b=c=1$  이라고 가정하면, [식 4-1]은 교역량이 양국 GDP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중력모형을 나타낸다.

본 보고서는 중력모형에서 양국간 교역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각국의 GDP를 고려하면서 시계열 분석의 장점을 접목하고자 VAR(Vector Autoregression, 벡터자기회기) 모형 형태의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VAR 모형은 시계열예측모형으로 널리 사용되는 다변량(multivariate) 분석으로 관심 변수인 한·인도 양국의 교역량과 함께 한국과 인도의 실질GDP를 고려한다. 서로의 거리를 나타내는 변수들(지리적 거리, 문화적 차이 등)은 대부분 변화가 없고 데이터가 시계열이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Keck, Raubold and Trupia(2009)와 유사한 형태의 VAR 모형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교역량을 추정하고 예측할 때 VAR 모형을 도입하였으며 본 연구와 같이 시계열 변수들의 특성상 거리 관련 변수는 통제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양국간 교역량(Trade: 한국의 대인도 수출과 수입의 합), 한국의 실질 GDP(KGDP), 인도의 실질 GDP(IGDP)를 이용하였다. 모든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했으며 각 변수는  $\ln\text{Trade}$ ,  $\ln\text{KGDP}$ ,  $\ln\text{IGDP}$ 로 표기한다. 데이터는 CEIC Database에서 추출하였으며 GDP는 2005년 기준이고 GDP와 Trade의 단위는 천 달러이다. 분석에

---

47) 실제로 양국간 거리는 지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제도적 거리(예를 들면 관세, 비관세 장벽) 등 양국간 교역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사용된 자료는 1965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도별 데이터이다.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4-1]이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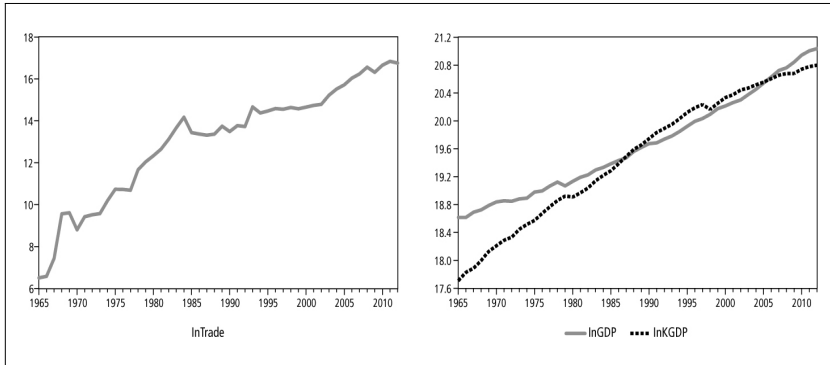
[그림 4-1]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변수들이 추세(trend)를 보이며 절편(intercept)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계열 변수들이 불안정적(nonstationary)일 개연성이 매우 크므로 안정성 검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변수들의 안정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표 4-1.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nKGDP	48	19,497	0,947	17,708	20,799
lnIGDP	48	19,660	0,727	18,615	21,037
lnTrade	48	13,021	2,741	6,506	16,838

주: CEIC Database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그림 4-1. 주요 변수 시계열 자료(추이)



주: 오른쪽에 위치한 KGDP와 IGDP의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실질 GDP 기준으로 인도의 경제규모가 한국보다 컸음을 알 수 있다. 1987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인도를 추월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년 동안 지속되다가 2006년에 인도가 한국을 다시 앞지르게 되었다.

CEIC DB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2013. 10. 1).

## 나. 단위근 검정

VAR 모형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계열회귀분석(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은 시계열이 안정적이라는 가정 아래 이루어진다. 따라서 변수들의 안정성에 대한 검정을 수행하였다. 검정방법으로는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 하나인 ‘추가된 디키-풀러 검정(ADF 검정: Augmented Dickey-Fuller Test)’을 이용하였다. [그림 4-1]에서 나타난 변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절편과 추세를 반영한 ADF 검정을 실행하였고 결과는 [표 4-2]에서 보여준다. 다양한 형태의 시차 차분항(lag length)을 포함한 검정을 하였으나 단위근(unit root) 검정결과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1차 시차 차분항의 결과만 서술한다. 모든 경우 시계열이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을 기각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에 사용되는 시계열들은 모두 불안정하다고 판명되었다.

따라서 각 변수를 1차 차분하여 단위근 검정을 하였고 모두 1%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안정적인 시계열임을 나타냈다(표 4-3 참조).<sup>48)</sup>

표 4-2. ADF 검정 결과

변수	검정통계량	p-value	시차
lnGDP	-0.6243	0.9732	1
lnKGDP	0.6584	0.9995	1
lnTrade	-2.9034	0.1708	1

주: 귀무가설(시계열이 단위근을 갖는다), 대립가설(시계열이 단위근을 갖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48) 세 개의 시계열 모두 1차 차분을 통해 안정적인 시계열이 된다. 이는 1차수만큼 적분(integrated of order 1)된 변수들이 안정성을 띠는 것으로 1차 차분 안정적(1st difference stationary)인 시계열이다.

표 4-3. 1차 차분값 ADF 검정 결과

변수	검정통계량	p-value	시차
$\ln \text{IGDP}(t) - \ln \text{IGDP}(t-1)$	-9.2091	0.0000	1
$\ln \text{KGDP}(t) - \ln \text{KGDP}(t-1)$	-6.8689	0.0000	1
$\ln \text{Trade}(t) - \ln \text{Trade}(t-1)$	-7.0846	0.0000	1

주: 1) 다양한 시차 차분항을 고려하였으나 모든 경우 안정적으로 1차 차분항의 결과만 나타낸다.

2) 귀무가설(시계열이 단위근을 갖는다), 대립가설(시계열이 단위근을 갖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 다. 공적분 검정

본 연구의 주목적은 한·인도 양국의 교역량 예측이다. 문제는 교역량은 수준(level)값에서는 안정적이지 않고 1차 차분에서 안정적(1st difference stationary)이라는 것이다. VAR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할 때 모든 시계열들의 안정성이 가정됨으로 교역량의 1차 차분값을 이용해야 하나, 이 경우 본 연구의 목적인 교역량의 수준값 예측은 난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시계열들이 불안정하더라도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가 있다면 VEC(벡터오차수정: Vector Error Correction) 모형을 통한 교역량의 수준값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들 변수 간 공적분 관계를 검정하였다.<sup>49)</sup> VEC 모형은 VAR 모형이 변형된 형태로 변수 간의 장기균형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본고의 주 목적은 미래 교역량의 수준값 예측에 있으므로 VAR 모형의 기본구조는 유지하되 수준값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VEC 모형이 대안으로 고려되었다.

49) 개별 시계열이 불안정하더라도 이들 시계열 사이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균형관계를 갖는 선형조합(linear combination)이 존재하면 이들 시계열들은 공적분(cointegrated) 된다고 한다.

변수들 간의 공적분 관계 성립 여부는 Johansen 검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VAR 모형의 시차를 이용한 공적분검정 결과를 보면 각 변수들 간에는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고 두 개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sup>50)</sup> 따라서 본 연구는 VAR 모형의 변형된 형태인 VEC 모형을 추정 한 후 교역량(수준변수)의 예측치를 구하였다.

표 4-4. Johansen 공적분검정 결과

공적분 벡터 수	Trace Statistic	Critical Value(5%)
None*	39,8505	24,31
At most 1*	19,5237	12,53
At most 2	0,0035	3,84

주: 1) 귀무가설[H0: 공적분 벡터수 = n], 대립가설[HA: 공적분 벡터수 ≤ n + 1]이므로 첫째열의 None은 H0[공적분 벡터는 없다]를 명시하고 있으며 HA[공적분 벡터가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나타낸다. 위의 경우 H0[공적분 벡터가 기껏해야 0 또는 1]을 각각 기각하지만 [공적분 벡터 = 2]는 기각하지 못하므로 두 개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2) \*는 귀무가설이 기각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라. VEC 모형을 이용한 교역량 예측

본 절에서는 한·인도 교역량의 예측치를 추정하였다. 본고의 목적이 향후 교역량 예측치를 구하는 것이므로 VEC 모형의 결과는 해석 없이 [부표 2]에서 제공하였다. VEC 모형의 추정(estimation)을 기반으로 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동태추정(dynamic forecasting) 결과는 [표 4-5]

50) 시차길이의 선택(lag length selection)은 LR(sequential modified LR test statistic), FPE(Final prediction error),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HQ(Hannan-Quinn information criterion)를 통해 추정하였다. 외생변수가 절편이면 모든 방법들은 1차 시차(lag = 1)를 나타냈으며, 외생변수에 추이를 추가하면 LR, FPE, AIC는 1차 시차, SC와 HQ는 2차 시차(lag = 2)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1차 시차와 2차 시차 두 경우의 공적분 검정을 하였고 검정통계치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주 결과인 변수 간의 공적분됨과 두 개의 공적분 벡터의 존재에는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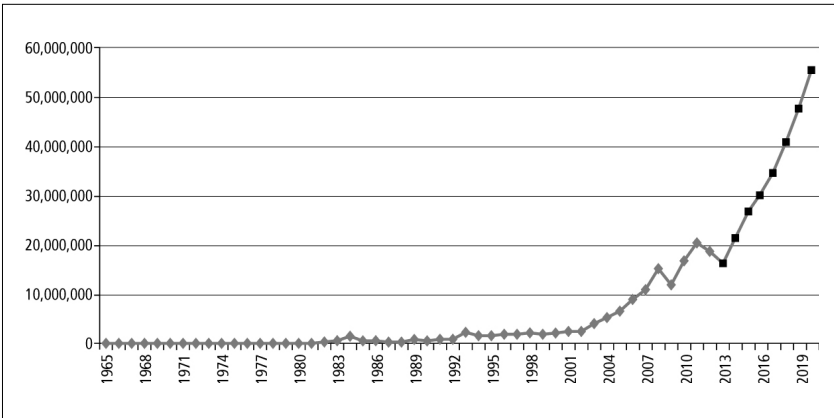
에서 보여주며, [그림 4-2]는 1965년부터 2012년까지의 실제 교역량을 포함한 교역량 추이를 보여준다. 또한 [그림 4-3]은 교역량 예측 값의 95% 신뢰수준 오차를 포함한다.

표 4-5. 한·인도 교역량 예측치(2013~20년)

연도	InTrade	Trade(천 달러)
2013	16,60892	16,336,623.73
2014	16,88256	21,478,435.72
2015	17,10572	26,848,486.27
2016	17,2213	30,138,078.6
2017	17,36292	34,723,248.29
2018	17,52707	40,917,565.37
2019	17,6808	47,717,081.76
2020	17,83643	55,752,34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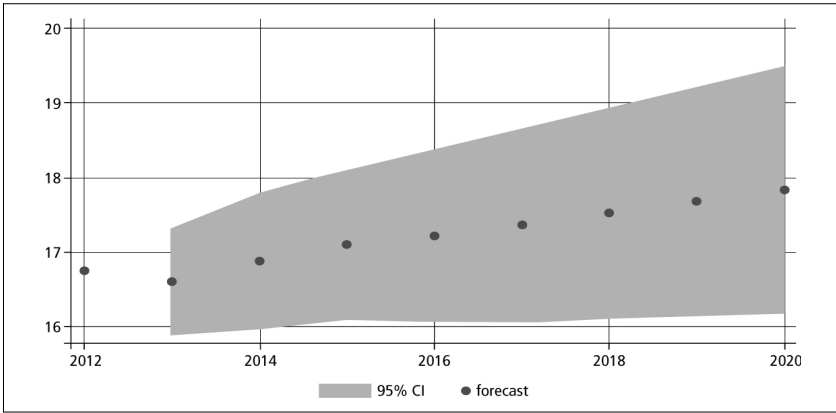
주: InTrade는 양국간 교역량의 자연로그값이며 Trade는 USD로 환산된 값이다.  
 자료: CEIC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2013. 10. 1).

그림 4-2. 한·인도 교역량 추이(예측치 포함)



주: 1) 한·인도 교역량 = 한국의 대인도 수출(FOB 기준) + 한국의 대인도 수입(CIF 기준).  
 2) 1965~2012년의 값은 실제이며 2013~20년의 값은 예측치임.  
 3)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예측치는 정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다.  
 4) 1965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인도 양국의 교역량을 포함한 표는 [부표 1]에 있다.  
 자료: 1965~2012년(CEIC Database), 2013~2020년(저자의 예측치)(2013. 10. 1).

그림 4-3. 한·인도 교역량 예측치(자연로그)와 유의수준



주: 회색부분은 교역량 예측값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

결과를 보면 교역량은 2013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나, 2014년부터는 증가하여 2015년 약 270억 달러, 2020년에는 대략 56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이웅, 송영철, 조충제(2011)의 전망인 2015년 340억 달러, 2020년 680억 달러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러한 수정 예측치는 2011년과 2012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한·인도 양국의 성장률 감소<sup>51)</sup>에 따른 결과이다.<sup>52)</sup> 하지만 향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한 관세 인하의 속도를 높이거나 서로의 양허관세율에 대한 추가적인 인하 및 철폐가 추진된다면 본고의 예측치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량을 달성할 여지는 충분하다.

51) 인도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8.6%와 9.3%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6.2%, 2012년 5.0%로 하강세를 보였다. 한국도 2012년 2.0%의 성장률을 보이며 2009년을 제외하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자료: CEIC Database). (2013. 11. 8)

52) 이 웅, 송영철, 조충제(2011, p. 15)의 전망은 1993~2010년간 평균성장률인 14.5%를 적용한 수치이므로 2011~12년 기간의 양국 경기침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점



## 1. 결론

2013년은 한·인도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맞추어 본 연구는 양국의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양국 경제협력에서 가장 활발한 부문인 교역에 대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집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국 교역관계를 심층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양국 경제협력의 이정표를 세운 한·인도 CEPA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전체적인 교역 현황과 추이를 정리하고 한·인도 양국에 초점을 맞추어 품목별 교역에 대한 장기추이를 조사하였으며, 무역 관련 경쟁 및 보완 지수를 통해 한·인도 양국의 품목별 경합도와 분업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시계열 분석인 VEC 모형을 이용해 양국의 교역량을 예측하였다.

한·인도 교역은 1973년 수교 당시 약 1,400만 달러로 양국의 교역부문 협력은 그다지 활성화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1년 인도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서서히 증가하였고, 특히 인도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던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증가하였다. 최근 인도의 경기가 부진하여 2012년 약 8% 감소하였으나 양국의 교역량 증가세는 계속될 것 전망이다.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한·인도 교역 부문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및 분석은 우리 정부의 대인도 경제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한·인도 수교 40주년을

계기로 진행된 본 연구가 한·인도 양국의 경제협력, 특히 교역 부문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2. 시사점

### 가. 인도 시장의 중요성

인도가 고성장이던 2004~06년 사이 핸드폰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대인도 수출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20%까지 증가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2013년 1~9월 사이)는 급감하여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다. 이는 인도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와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 인구규모 1위국인 중국을 인도가 조만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인도 소비재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2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던 대중국 교역이 2010년 이후 둔화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인도 소비재 시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이므로 우리 기업은 인도시장에 맞는 제품을 차별화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무한한 잠재력의 인도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 나.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의 필요성

한국의 대인도 수입은 2010년 한·인도 CEPA의 영향을 받았다. 인도 수입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나프타는 한·인도 CEPA 이전 관세율이 1%였으나 2010년 CEP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인도 나프타 수입은 2010년, 2011년 각각 34%, 51% 증가하였다. 한·인도 CEPA 이후 2011년 나프타의 수입액은 2009년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41% 감소한 나프타의 수입액 하락 폭을 회복한 것이며 2008년 38억 8,900만 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것이다(46억 2,600만 달러). 이는 인도가 한국과 체결한 FTA로 얻은 직접적인 수혜이며, 한국은 비용 측면에서, 인도는 대한국 적자해소에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를 통해 양국 모두 한·인도 CEPA의 수혜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인도의 교역 관련 분업관계를 나타내는 좋은 예이다. 한국은 인도에서 나프타와 같은 원료를 수입하고 가공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는데 이는 분업적 관계의 교역이다. 이러한 관계의 품목을 발굴하여 관세를 철폐한다면 한국은 비용절감, 인도는 대한국 적자폭 축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시비교우위와 시장비교우위 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이 세계시장이나 상호 수입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양국 기업 및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의 재개이다. 업그레이드를 통한 관세철폐품목 확대 및 기존의 양허세율 인하 가속화는 한국뿐 아니라 인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웅, 송영철, 조충제(2011, p. 13)가 분석한 바와 같이 관세인하폭이 증가할수록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줄어들고 복지효과(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도 인도가 더 클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나프타의 사례를 보더라도 직접적인 관세인하 및 철폐의 수혜자는 인도이므로, 인도는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한 관세인하 및 철폐 가속화가 실현된다면 본 연구의 계량 분석 예측치인 2015년 270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며, 2020년 예측치인 560억 달러를 상회하는 600억 달러 이상의 양국 교역량을 달성할 여지 또한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한·인도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당연히 공동위원회 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 인도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면 인도도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총선 이후의 인도 정국을 예의주시 하면서 2014년에는 한·인도 업그레이드 협상을 성사시키고 이를 위한 아젠다 및 전략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3. 본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인도현지조사 및 국내기업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당초의 계획은 인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하여 인도에서 한국의 상품을 수입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고 한·인도 CEPA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국내에서 인도의 상품을 수입할 때 CEPA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문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현장연구의 미비함은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도를 반감시켰으며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실증분석에서도 산업별, 시기별 요소와 유무형의 거리 등이 양국간 교역의 원인임에도 양국의 GDP만을 모형에서 이용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모형은 산업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분석하는 것이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시하려던 실증분석은 교역량을 예측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시계열 분석의 채택도 충분한 대안이라 하겠다.

## ■ 참고문헌 ■

### [국문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3. 6.13. 「새정부의 新통상 로드맵」.
- 예소 히데끼. 2009. 『인도경제의 발자취』, p. 89. 경상대학교출판부.
- 외교부. 2009.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
- 유태환·최윤정·M. Pant·V. Balaji. 2005.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 협력 강화방안」. 정책연구 05-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웅·송영철·조충제. 2011. 「한·인도 CEPA 체결 2년의 평가: 교역부문의 성과와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1-3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인혁·김영삼. 2007. 「자동차부품업체들의 해외 진출 동향과 시사점」. 『하나이슈 포커스』. 하나금융그룹.
- 이재기. 2004. 『세계지역연구』. 한울출판사.
- 잔드라세카·고쉬. 2008. 『인도경제개혁의 그림자』, p. 201. 비즈프레스.
- 조충제·성한경·최윤정·송영철. 2010. 『한·인도 CEPA 이후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연구보고서 1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충제·송영철·최윤정·이웅·정혜원. 201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12-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충제·이준규·송영철. 2009.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9-3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코트라. 2009. 「인도 소비재시장 동향과 진출확대전략」. 『Global Business Report』, 제36호.

### [영문자료]

- Ahmed, Shahid. 2010. "India-Korea CEPA: Potentials and Realities."
- Alexander Keck & Alexander Raubold & Alessandro Truppia. 2009. "Forecasting

international trade: A time series approach.” *OECD Journal: Journal of Business Cycle Measurement and Analysis*, vol. 2009(2), pp. 157-176. OECD Publishing, CIRET.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2009. “Foreign Trade Policy, 27th August 2009 - 31st March 2014.”

Krugman, Paul R. and Maurice Obstfeld. 2006.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and Policy*, 7th edition.

Sahoo, Pravakar, Durgesh Kumar Rai and Rajiv Kumar. 2009. “India-Korea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Working Paper No. 242.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WTO. 2011. *Trade Policy Review: India*.

\_\_\_\_\_. 2013. *Trade Policy Review: Republic of Korea*.

#### [온라인 자료]

인도 MFN 관세율. 2013. <http://www.cbec.gov.in/customs/cst2012-13/cst1213-idx.htm>.

FTA 종합지원포털(<http://www.ftahub.go.kr/>) (2013년 12월 5일)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2013.

[http://commerce.nic.in/publications/pdf/annualreport\\_overview-2012-13.pdf](http://commerce.nic.in/publications/pdf/annualreport_overview-2012-13.pdf)  
(accessed June 8, 2013)

WTO Country profile: India. 2013. (<http://stat.wto.org/CountryProfile/WSDBCountryPFView.aspx?Country=IN&Language=E>). (accessed August 3, 2013)

WTO Country profile: Korea, Republic of. 2013)

<http://stat.wto.org/CountryProfile/WSDBCountryPFView.aspx?Language=E&Country=IN>(accessed September 5, 2013)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2013.

<http://www.cbec.gov.in/customs/cs-act/notifications/notfns-2012/cs-add2012/cs-notfns-add12.htm>(accessed August 3, 2013)

무역협회, 무역용어. [http://www.kita.net/jsp/wiki/WIKI002.R01.cmd?charSet=Y&n\\_dirid=1&ckval=0&cmd\\_id=WIKI002.R01.cmd](http://www.kita.net/jsp/wiki/WIKI002.R01.cmd?charSet=Y&n_dirid=1&ckval=0&cmd_id=WIKI002.R01.cmd) (11월 13일).

SITC 코드: [http://www.kita.net/stat/guide/guide/pop\\_guide05\\_01.html](http://www.kita.net/stat/guide/guide/pop_guide05_01.html)  
(2013년 11월 18일)

Kita.net 무역통계 가이드 2013. [http://www.kita.net/stat/guide/guide/pop\\_guide05\\_01.html](http://www.kita.net/stat/guide/guide/pop_guide05_01.html)  
(2013년 11월 1일)

관세청 FTA포털 FTA 용어집. 2013. <http://www.customs.go.kr/kcshome/ftaportalkor/FtaWordDicaryList.do?layoutMenuNo=30734&searchKeyword=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2013년 11월 21일)

#### [데이터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2013. 10. 16)

CEIC Database (2013. 10. 1, 11. 8), 외 다수

IMF, DOTS DB(2013. 10. 14)

UN Comtrade DB (2013. 11. 1)

World Bank, WorldBank DB(2013. 10. 14)

#### [언론기사]

「한국 반덤핑 피소 세계 2위...“보호무역주의 강화 탓」. 2013. 『이투데이』. (8월 25일)

## 부 록

부록 표 1. 한인도 교역량 추이(예측치 포함):  
1973~2020년

부록 표 2. VEC모형 추정결과



부록 표 1. 한인도 교역량 추이(예측치 포함): 1973~2020년

연도	InTrade	Trade(천달러)
1973	9,569831	14326
1974	10,19317	26720
1975	10,72931	45675
1976	10,72443	45453
1977	10,68529	43708
1978	11,6698	116985
1979	12,04388	170056
1980	12,33089	226588
1981	12,64484	310158
1982	13,12083	499235
1983	13,66199	857686
1984	14,17249	1429012
1985	13,43389	682755
1986	13,36676	638424
1987	13,31457	605961
1988	13,36156	635117
1989	13,74527	932168
1990	13,48422	717997
1991	13,76791	953515
1992	13,72751	915761
1993	14,66014	2327106
1994	14,37202	1744568
1995	14,46997	1924111
1996	14,58223	2152684
1997	14,55246	2089553
1998	14,63722	2274379
1999	14,57176	2130272
2000	14,65313	2310870
2001	14,73713	2513359
2002	14,78365	2633044
2003	15,223	4085697
2004	15,51697	5481959
2005	15,7191	6709915

부록 표 1. 계속

연도	InTrade	Trade(천달러)
2006	16,03184	9173589
2007	16,23361	11224460
2008	16,56011	15558304
2009	16,31324	12154914
2010	16,65512	17109053
2011	16,83826	20547649
2012	16,75164	18842863
2013	16,60892	16336624
2014	16,88256	21478436
2015	17,10572	26848486
2016	17,2213	30138079
2017	17,36292	34723248
2018	17,52707	40917565
2019	17,6808	47717082
2020	17,83643	55752343

주: 1) 한인도 교역량 = 한국의 대인도 수출 + 한국의 대인도 수입

2) 1965~2012년의 값은 실제이며 2013~2020년의 값은 예측치임.

자료: 1965~2012년(CEIC Database), 2013~2020년(VEC모형 추정치를 통한 저자의 예측치).

부록 표 2. VEC모형 추정결과

Vector Error Correction Estimates			
Date: 11/08/13 Time: 22:50			
Sample (adjusted): 1968 2012			
Included observations: 45 after adjustments			
Standard errors in ( ) & t-statistics in [ ]			
CointegratingEq:	CointEq1		
LNIGDP(-1)	1		
LNKGDP(-1)	0,850848		
	(1,3886)		
	[0,61274]		
LNTRADE(-1)	0,428266		
	(0,4889)		
	[0,87592]		
C	-41,97021		
Error Correction:	D(LNIGDP)	D(LNKGDP)	D(LNTRADE)
CointEq1	0,00722	-0,009621	-0,059259
	(0,0029)	(0,0034)	(0,0440)
	[ 2,49633]	[-2,84635]	[-1,34648]
D(LNIGDP(-1))	-0,166036	0,426335	3,688823
	(0,1596)	(0,1866)	(2,4290)
	[-1,04007]	[ 2,28528]	[ 1,51864]
D(LNIGDP(-2))	-0,129047	-0,063299	-4,189833
	(0,1800)	(0,2104)	(2,7392)
	[-0,71683]	[-0,30088]	[-1,52958]
D(LNKGDP(-1))	-0,078826	0,069604	-0,703239
	(0,1404)	(0,1641)	(2,1366)
	[-0,56137]	[ 0,42417]	[-0,32915]
D(LNKGDP(-2))	0,030283	-0,117604	-0,113787
	(0,1281)	(0,1497)	(1,9488)
	[ 0,23644]	[-0,78572]	[-0,05839]
D(LNTRADE(-1))	0,003431	0,000349	0,023582
	(0,0095)	(0,0111)	(0,1440)
	[ 0,36248]	[ 0,03159]	[ 0,16375]

부록 표 2. 계속

D(LNTRADE(-2))	0,01479	-0,001545	-0,303378
	(0,0090)	(0,0106)	(0,1376)
	[ 1,63545]	[-0,14616]	[-2,20476]
C	0,066652	0,04898	0,344814
	(0,0172)	(0,0201)	(0,2610)
	[ 3,88567]	[ 2,44345]	[ 1,32114]
R-squared	0,28046	0,369521	0,306055
Adj. R-squared	0,14433	0,250242	0,174768
Sum sq. resids	0,02713	0,03705	6,281056
S,E. equation	0,027078	0,031644	0,412017
F-statistic	2,060245	3,097938	2,331195
Log likelihood	102,9578	95,94608	-19,54694
Akaike AIC	-4,220347	-3,908715	1,224308
Schwarz SC	-3,899162	-3,58753	1,545493
Mean dependent	0,052147	0,064715	0,207132
S,D. dependent	0,029273	0,036545	0,453552
Determinant resid covariance (dof adj.)	1,13E-07		
Determinant resid covariance	6,28E-08		
Log likelihood	181,5568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6,869191		
Schwarz criterion	-5,785194		

자료: 저자 작성.

## Executive Summary

### The 40 Year Anniversary of Korea-India Amity: Evaluation and Prospects of Trade Sector

Woong Lee, Young Chul Song, and Lee Jung Mi

The year 2013 represent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Korea-India diplomatic relations. This report is prepared for evaluating the 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in Korea-India economic cooperation. The study analyzes trade relations using all available sources from the 1970s until today, as the trade sector is the most influential among all sectors between Korea and India in terms of their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 Chapter 2, respective trade policies of Korea and India are listed and the Korea-India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hich has been the cornerstone of the two countries' economic cooperation, is evaluated. In Chapter 3 is presented the overall picture of Korea-India trade including long-term trends of trade, by items, with focus on Korea and India. It also analyzes the competitiveness and complementarity of Korea and India in international trade with various indices. Lastly, in chapter 4, the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India is predicted through a VEC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73,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India was not active, with a total volume of approximately 14 million dollars. But trade figures have shown a gradual increase since the beginning of Indian reforms and openness policies in 1991. Around the early 2000s, when India experienced vigorous economic growth, the bilateral

trade increased rapidly. Though trade declined by about 8% in 2012 following the recent recession in India, the upward trend in trade volume is likely to continue.

According to the trade volume prediction through a time-series estimation, the trade volume will show a declining trend in 2013 but will increase in 2014, reaching about 27 billion dollars in 2015 and then 56 billion dollars in 2020. This estimate is lower than the past predictions of 34 billion dollars by 2015 and 68 billion dollars by 2020 because the reduced growth rate is taken into account following the economic recession of both countries in 2011 and 2012.<sup>53)54)</sup> Nevertheless, if both countries take actions to expedite tariff reduction through upgrading the Korea-India CEPA or perhaps enact additional reduction/removal of the countries' bound tariff rates, greater degree of trade volume than what is predicted can certainly be achieved.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Indian markets is emphasized. Between 2004 and 2006 when the Indian economy was at its peak, the share of consumer goods in Korea's export to India reached nearly 20% due to its brisk mobile phone exports. In contrast, however, the share of consumer goods has dropped off rapidly to below 5% between January and September of 2013. This is attributed to both declining consumption in India due to the recession and lowered price competitiveness of Korean products. Fortunately, the importance of Indian consumption goods market is predicted to grow higher as India's population is expected to exceed that of China, hitherto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

53) India's real growth rate was 8.6% in 2009 and 9.3% in 2010 but showed a decrease of 6.2% in 2011 and 5.0% in 2012. Korea's growth rate in 2012 was 2.0%, marking its lowest in the period since 2005 except the year 2009 (Source: CEIC Database).

54) The prediction by Lee, Song and Cho (2011, p.15) was made with 14.5 percent average growth in the period between 1993 and 2010 without reflecting the two countries' recession between 2011 and 2012.

sooner or later. In addition, it also contributes to increased importance of the Indian market as Korean exports to China has been showing a downward trend since 2010 after experiencing more than 20% annual growth on average in the past two decades. Thus Korean firms should secure price competitiveness by differentiating their products to target the Indian market whose potential is near infinite.

Korea's imports from India have been affect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India CEPA. The tariff rate for naphtha,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half of the imports from India, had been 1% but was immediately removed after the Korea-India CEPA went into effect in 2010. Accordingly, Korea's import of naphtha from India increased to 34% and 51% in 2010 and 2011 respectively. The amount of naphtha imports in 2011, after the effectuation of the Korea-India CEPA, redeemed the precipitous 41-percent decrease in naphtha imports due to the 2009 economic crisis, increasing 20% from 3.9 billion dollars in 2008 to 4.6 billion dollars. This is one of the immediate benefits of India having signed an FTA with Korea which has a positive impact on Korea's cost reduction and India's deficit resolution toward Korea. Thus it is shown that both countries are mutual beneficiaries of the Korea-India CEPA.

The case of naphtha has well exemplified the relationship, in terms of specialization of trade between Korea and India. Korea imports and refines raw materials like naphtha from India and exports petrochemical products and this could be considered specialization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 of each country. Discovering items in this type of relationship and eliminating related tariffs can lead to lowered costs for Korea and reduction of the trade deficit for India.

Moreover, as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show, there are no overlapping items with high export competitiveness in each other's market and even in the global market. Therefore, firms and consumers of both countries should hereby benefit from mutual elimin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Consequently,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is the resumption of the Korea-India CEPA upgrade negotiation. Korea will not be the only one to benefit from this but India will also obtain much advantage through the upgraded CEPA, which will broaden the range of tariff-free items and accelerate the reduction of existing bound tariff rates. As analyzed in Lee, Song and Cho (p. 13, 2011), the wider the tariff reduction gap, greater the decrease in India's trade deficit with Korea which means a potentially larger welfare effect for India (producer surplus and consumer surplus). Since India is a beneficiary of the tariff reduction, and elimination in the case of naphtha, India should be actively involved in a CEPA upgrade negotiation. If the tariff reduction/elimination through Korea-India CEPA upgrade is realized, the actual trade volume increase will be achieved, which could surpass 27 billion dollars in 2015, which is what our research predicts. Besides, it is very likely that the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India will jump above 60 billion dollars, exceeding the predicted 56 billion dollars in 2020.

However, the 2nd Korea-India Joint Committee, which was to be held in Seoul in 2012, has not yet convened, and thus the negotiation to upgrade the Korea-India CEPA is being delayed. It is expected that when a new cabinet is formed after India's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first half of 2014, India will be able to engage with greater enthusiasm in negotiating the Korea-India CEPA upgrade.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ay attention to the new administration of India after the election, and prepare adequate agendas and strategies for successful negotiation with respect to a CEPA upgrade in the near future.

#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

## ■ 2013년

- 13-0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 강대창 · 김유미
- 13-02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 강대창 · 손성현 · 서영경
- 13-03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국·필리핀 경제협력 방향 / 오윤아 · 신민규
- 13-04 중·ASEAN 분업구조 및 결정요인 분석 / 정재완 · 방호경
- 13-05 한·인도 수교 40주년: 교역 부문 성과와 과제 / 이 용 · 송영철 · 이정미
- 13-06 한·인도 수교 40주년: 투자 부문 성과와 과제 / 조충제 · 최윤정
- 13-07 한·인도 CEPA 확대를 통한 산업협력방안 연구: ICT 산업 중심으로 / 성한경 · 이상준 · 이순철 · 홍성걸
- 13-08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 제성훈 · 민지영
- 13-09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정책적 시사점 / 제성훈 · 강부균
- 13-10 한·벨라루스 ICT 산업 협력방안 / 민지영
- 13-11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의 전략적 함의: '미국요인'과 한국에의 시사점 / 이정철 · 백준기 · 김재관 · 이남주
- 13-12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 주진홍
- 13-13 몽골 경제 발전전략: CGE 분석 및 사례연구 / 이창수 · 송백훈
- 13-14 태평양 동맹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 / 임태균 · 이시은
- 13-15 대중남미 중소기업 진출방안 연구: OLI 패러다임 분석을 중심으로 / 김승일 · 오화석 · 기현서
- 13-16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정책과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 광성일 · 전혜린

- 13-17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이후 중·란 관계 동향 및 시사점 / 최필수 · 임민경 · 박재운
- 13-18 한·중등 금융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 은행의 중등 금융시장 진출전략 및 기대효과 / 양오석
- 13-19 신흥국의 국가리스크 비교분석 및 시사점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13-20 주요국의 창조산업 해외진출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김은지
- 13-21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러시아의 주요 산업: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 민지영 · 강부균 · 오명훈
- 13-22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 통신 / 송영철 · 이정미 · 최원석
- 13-23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육상교통인프라, 바이오에너지 / 이재호 · 신민금 · 정윤서
- 13-24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에콰도르의 주요 산업: 건설·플랜트, 자동차 / 김진오 · 박미숙 · 유성준
- 13-25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탄자니아의 주요 산업: 인프라 건설, 제약 / 전혜린 · 장종문 · 류영규
- 13-26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카타르의 주요 산업: 천연가스, 인프라 건설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이용호
- 13-27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폴란드의 주요 산업: 자동차, 인프라 / 이철원 · 이현진 · 강세나
- 13-28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동남아, 인도 · 남아시아
- 13-29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러시아
- 13-30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중앙아시아 · 몽골
- 13-31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남미 · 중등 · 아프리카 · 터키

■ 2012년

- 12-01 한·인도 제약산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과 경쟁 전략 / 이 용 · 송영철
- 12-02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 오윤아 · 정재완 · 박나리
- 12-03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 장준영
- 12-04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인니 산업협력방안 / 강인수 · 송유철 · 이호생 · 한홍렬
- 12-05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 이요한
- 12-06 몽골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 이계영 · 제성훈 · 김홍진 · 간투무르 몽크나산
- 12-07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특징과 시사점: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 조영관
- 12-08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정책과 녹색성장 협력방안 연구 / 주진홍
- 12-09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 조영관 · 성원용 · 이상준 · 주진홍
- 12-10 러시아·중국·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 백준기 · 김재관 · 이남주 · 박상남
- 12-11 남아공의 토지문제 연구 / 장용규 · 설병수 · 황규득 · 강경화 · 베텔
- 12-12 동부아프리카 2개국(에티오피아,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 이진상 · 변 용
- 12-13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 발전과제와 한국의 개발협력방안 / 광성일 · 전해린 · 백석훈
- 12-14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 권기수 · 박미숙 · 이시은
- 12-15 중남미 엘리트 집단 특성에 관한 연구 / 김기현 · 박윤주 · 김영철 · 이상현
- 12-16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 / 이권형 · 손성현
- 12-17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 이권형 · 박재은 · 박현도

■ 2011년

- 12-18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 이재호 · 박나리
- 12-19 조지아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 강부균 · 민지영
- 12-20 멕시코의 주요 산업: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 김진오 · 이시은
- 12-21 요르단의 주요 산업: 전력,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 윤서영 · 박재은
- 12-22 모잠비크의 주요 산업: 전력산업, 농업을 중심으로 / 전혜린
- 12-2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동남아시아
- 12-2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중앙아시아
- 12-2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러시아, 몽골
- 12-2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 11-1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 김찬완 · 손승호 · 임정성
- 11-2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방안 / 이순철 · 이영일
- 11-3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 조충제 · 은기수 · 박 건 · 장원봉 · 유성용 · 정혜원
- 11-4 한·인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 / 김현재 · 조상민 · 박찬국
- 11-5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 이 용 · 최호상 · 정무섭 · 서대교
- 11-6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 강대창 · 박나리 · 유현석 · 김형중 · 이동운
- 11-7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 조홍국 · 윤진표 · 이한우 · 최경희 · 김동엽

- 11-8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  
김태윤 · 김홍구 · 조영희 · 이요한 · 신민금
- 11-9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강대창 · 박나리 · 김형준 · 홍석준 · 원순구 · 손승호
- 11-10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  
이호생 · 강인수 · 송유철 · 한홍렬
- 11-11 미얀마 사회문화 · 정치와 발전잠재력 /  
오윤아 · 장준영 · 최재현 · 우꼬래 · 강대창 · 김유미 · 박나리
- 11-12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 이재영 · 김석환 · 정세진 · 박정호 · 박병인 · 나희승
- 11-13 한 · 중앙아시아 인적지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  
윤성학 · 김영진 · 김일검 · 김안국 · 홍미희 · 성동기 · 이시영
- 11-14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의 특징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조영관 · 주진홍 · 강명구 · 김영식 · 오영일 · 이상준
- 11-15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 /  
이재영 · 이평래 · 윤익중 · 이시영 · S. Avirmed
- 11-1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 11-1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동남아시아 1
- 11-18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동남아시아 2
- 11-19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앙아시아 1
- 11-20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  
중앙아시아 2
- 11-21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I  
몽골, 터키

## 이 응(李 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경제학 박사  
캐나다 University of Regina 조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wlee@kiep.go.kr)

### 저서 및 논문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공저, 2012)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공저, 2013) 외

## 송영철(宋泳澈)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제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ycsong@kiep.go.kr)

### 저서 및 논문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공저, 2013)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공저, 2013) 외

## 이정미(李廷美)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現, E-mail: leejm@kiep.go.kr)

### 저서 및 논문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공저, 2013) 외

전략지역심층연구 13-05  
연구자료 13-18

## 한·인도 수교 40주년: 교역 부문 성과와 과제

---

2013년 12월 26일 인쇄  
2013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일형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화: 02-3460-1142 FAX: 02-3460-1144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02-2272-1533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

ISBN 978-89-322-2362-9 94320      정가 7,000원  
978-89-322-2064-2 (세트)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2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특기사항

---

# The 40 Year Anniversary of Korea-India Amity: Evaluation and Prospects of Trade Sector

Woong Lee, Young Chul Song, and Lee Jung Mi

---

2013년은 한국과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맞추어 본 연구는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 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양국 경제협력에서 가장 활발한 부문인 교역에 대해 수교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양국 교역관계를 심층분석 하였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및 분석은 우리 정부의 대인도 경제정책 수립과 한·인도 양국 경제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